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패턴적인 건축구조를 통한  
도시 풍경의 형상화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이해리

패턴적인 건축구조를 통한  
도시 풍경의 형상화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조 병 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 양 화 과

이 해 리

# 인 준 서

이해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5년도 석사 청구전에서 ‘패턴적인 성향의 도시 풍경’을 주제로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표현 형식과 내용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의미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본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개발이 활발한 도시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시각적인 풍경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경험하며 도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는 근대화 이후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농촌인구의 대규모 유입에 따라 주택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하였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구의 근대건축양식이 도입되는데, 이에 따라 공간과 건축이 질서와 규칙에 맞춰 체계적으로 분할되면서 현재의 패턴화된 도시경관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본인은 도시의 공간과 구조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적인 특성과 도시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작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였다. 도시의 풍경은 복잡적이고 다양해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반복적이고 규격화된 형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 오피스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적인 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

들의 삶에서도 반복적이고 규격화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시사회구조의 영향 아래 사람들이 점차 유사한 사고와 행동양식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인은 전술한 문제의식을 도시 건축의 패턴적인 구조를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과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대를 막론하여 본인과 유사한 관점에서 도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 작가들과 작품을 연구하고, 본인 작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시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 되어왔는지 알아볼 것이다. 특히 본인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건축적인 구조를 통한 화면구성, 반복적인 표현 등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표현 형식의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며, 본인 작업의 내용을 더욱 견고히 하려 한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하여 현대 도시의 풍경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살펴보고, 현대 도시의 삶 속에서 감성적인 요소와 개성이 더욱 표출될 수 있는 삶으로의 전환을 고찰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와 도시환경 속에서 인간 고유의 특성이 망각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5
1. 작품 형성 배경 .....	5
(1) 도시로의 주거지 이동 .....	5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	7
2. 작품의 내용 연구 .....	9
(1) 도시개발에 따른 패턴화된 공간구조 고찰 .....	9
(2) 사회구조적인 틀과 유사한 도시 풍경 .....	15
3. 작품의 조형 연구 .....	21
(1) 건축적 형태의 패널 .....	21
(2) 건축구조를 통한 화면구성 .....	24
(3) 절제된 색채 .....	26
(4) 반복과 도식화 .....	29

4. 작품분석 .....	34
Ⅲ. 결 론 .....	64

참고문헌

ABSTRACT

## 도판 목차

- [도판 1] <Calm City 5>, 2013, oil on canvas, 91×116.8cm
- [도판 2] 1890년 서울의 스카이라인
- [도판 3] 2011년 서울의 스카이라인
- [도판 4]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
- [도판 5] 뉴욕 국제연합 빌딩
- [도판 6] 서울 대명타워
- [도판 7] 파놉티콘
- [도판 8] 시트로앵(Paul Citroen),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1923,  
photomontage, 67×58cm
- [도판 9] 정직성, <신림동-연립주택 3>, 2005, oil on canvas, 130×194cm
- [도판 10] <Repeat 2>, 2015, line tape, acrylic on panel, 120×85cm,  
120×96.5cm/each
- [도판 11] 한정선, <Apartment blocks>, 2012, archival pigment print,  
150×100cm, 개인소장
- [도판 12] 한정선, <Apartment blocks 1>, 2012, archival pigment print,  
100×70cm, 개인소장
- [도판 13] <Repeat 1>, 2015, line tape, acrylic on panel, 120×88.6cm
- [도판 14]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아비세나(*Avicenna*)>, 1960,  
aluminum paint on canvas, 182.9×182.9cm
- [도판 15] <Repeat 2>, 2015, line tape, acrylic on panel, 120×85cm,  
120×96.5cm/each
- [도판 16] 이여운, <Illusion 04>, 2005, 한지에 채색, 225×185cm

- [도판 17] 불비는 시간대의 명동
- [도판 18] 새벽시간대의 명동
- [도판 19]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이른 일요일 아침  
(*Early Sunday Morning*)>, 1930, oil on canvas, 89.4×109.2cm
- [도판 20] <15번가와 16번가 사이에 있는 7번가(*Seventh Avenue  
between Fifteenth and Sixteenth Streets*)>, 1914,  
Subway Construction Photograph Collection #1004,  
The New York Historical Society
- [도판 21] <Reflection 6>, 2015, acrylic on panel, 120×80.5cm,  
120×78.1cm/each
- [도판 22] 김수영, <파리 서민주택>, 2003, oil on canvas, 200×300cm
- [도판 23] 김수영, <어린이회관>, 2010, oil on canvas, 200×250cm
- [도판 24] <Reflection 1>, 2015, acrylic on panel, 119.7×77.5cm
- [도판 25] 배문경, <Cloned Me>, 2014, stainless mirror, steel,  
500×300×300cm
- [도판 26] <Reflection 4>, 2015, acrylic on panel, 45×119.9cm

## 작 품 목 차

[작품 1] <Reflection 1>, 2015, acrylic on panel, 119.7×77.5cm

[작품 2] <Reflection 6>, 2015, acrylic on panel, 120×80.5cm,  
120×78.1cm/each

[작품 3] <Reflection 4>, 2015, acrylic on panel, 45×119.9cm

[작품 4] <Reflection 3>, 2015, acrylic on panel, 89.7×46.2cm

[작품 5] <Reflection 5>, 2015, acrylic on panel, 93×92.2cm

[작품 6] <Repeat 1>, 2015, line tape, acrylic on panel, 120×88.6cm

[작품 7] <Repeat 2>, 2015, line tape, acrylic on panel, 120×85cm,  
120×96.5cm/each

[작품 8] <Repeat 3>, 2016, acrylic on woodrock(boardlong), 45×60cm

[작품 9] <Untitled>, 2015, print on paper, 29.7×42cm

[작품 10] <Untitled>, 2015, print on OHP film, 29.7×42cm

[작품 11] <Untitled>, 2015, print on paper, 29.7×42cm

[작품 12] <Untitled>, 2015, print on paper, 29.6×65.4cm

## I. 서론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인정하고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유는 1960년대 말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전파되었으며, 문화적으로 수용되면서 특히 광고와 패션, 미술과 건축, 무용과 연극, 문학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유가 등장한지 약 50~6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한국의 사회, 정치와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은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다.

다양성이 중요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기에 살고 있음에도 도시의 거리에서 들리는 음악, 패션, 유행하는 언어와 몸짓은 획일적인 인상을 준다. 인터넷처럼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역할이 확장되고 대중문화와 사회적 관점, 방향성이 빠르게 구성되면서 개인의 의견을 제한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풍경과 결합되어 각자 고유의 개성을 상실해가는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전술한 문제는 단순히 매체나 공간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들의 시선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기도 한다. 본인의 경우 어린 시절 교육자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타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인 고정관념들에 영향을 받으며 수동적 사고와 행동이 낯설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인터넷 매체를 일상에서 활발히 사용하면서 방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본인과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생활권에서도

개인적, 사회적 통제와 관념과 같은 패턴화가 존재한다. 그것은 도시의 풍경, 그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이나 건축물의 구조, 외형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복되고 규격화된 구조이다.

도시계획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일정 유형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관점에서조차 낯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일반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김 씨가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여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지 상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sup>1)</sup> 김 씨가 만나는 공간들은 동료들과 유사한 구조의 아파트, 방들의 구조, 일정 유형의 사무실이며, 동료들과 방문하는 식당들의 모습도 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오늘날 도시의 일정 유형화된 공간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서구 근대 건축의 경제적 효용가치의 영향에 따라 비롯되었지만, 시대가 변화하였음에도 여전히 획일적인 성향의 사회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현대 도시를 바라보는 문화적 관점과 건축 공간, 건축의 외형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건축물의 구조, 형태, 양식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복합적인 시대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의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구 근대건축의 기능주의 원리에 따른 규격화된 건축과 건축의 구성요소인 창문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한다.

본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작품에 접근한다. 첫 번째 방식은 실제 건축물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의 형상을 토대로 작업하는 것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직접 사진을 찍고, 실제 건축물의

---

1) 진동선 「획일화된 현대인의 일상 ‘찰칵’」, 『주간동아』, 2006.03.14. 526호, p. 66-67.  
<http://weekly.donga.com/List/3/all/11/78507/1> (2015.12.20.검색)

구조를 화면 안에 도식적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 방식은 실제 건축물이 아닌 본인이 구상한 패턴적인 성향이 반영된 건축물을 바탕으로 조작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와 본인이 조작적으로 구성한 이미지의 구현을 통해 패턴적이고, 규격화된 현대 도시의 경관과 사회구조를 조망한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 안에서 역설적이게도 점차 각자의 개성을 상실해가는 사회구조를 냉철한 입장에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삶과 사회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착된 생각들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본론의 1장에서는 도시로의 주거지 이동에 따른 도시화와 그 과정에서 경험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고찰하고, 작품의 형성 배경이 되는 문제의식에 대해 서술한다.

2장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공간구조의 체계화와, 규격화된 사회적 틀의 상호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주제가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 관련 작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인 작품의 내용이 심화되도록 한다.

3장에서는 작품의 주된 조형 요소와 표현 형식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조형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의미와 방법론적 표현 형식의 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개별적인 작품 분석을 통하여 작품의 표현 형식과 그 의미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작품을 제작하는 물리적인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며, 작품이 조형적으로 형상화되어가는 과정을 수록한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한 연구 성과와 발전 과제에 대해 서술하고, 작품의 진행과 연구 과정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더욱 발전된 작품 제작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 II. 본 론

### 1. 작품 형성 배경

#### 1) 도시로의 주거지 이동

한국은 1960년대부터 급속한 개발과 경제발전에 따라 유례없는 빠른 도시화를 이룩해 냈다. 산업화가 확대 진행되면서 많은 노동력과 자본이 도시지역으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에 적정 규모의 시장과 대규모 기반 시설을 제공하여 일자리와 혁신역량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은 대부분 대도시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sup>2)</sup>

한국의 중심 도시인 서울의 인구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농촌과 타 도시에서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1960년에서 1990년까지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표 1)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이 발생했지만 그중 서울의 주택문제는 낙후된 시설과 공간 부족으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태였다.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서 오늘날의 구조를 확장했던 시기는 1972년이다. 이 시기(5,430천 명)와 1990년(10,620천 명)의 인구 변화를 검토해보면, 두 배가량의 인구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수가 대

시기	서울인구 단위: 천명
1920	280
1955	900
<b>1960</b>	<b>2,450</b>
<b>1972</b>	<b>5,430</b>
<b>1983</b>	<b>9,200</b>
<b>1988</b>	<b>10,290</b>
<b>1990</b>	<b>10,620</b>
2000	9,891
2005	9,820
2011	10,529

2) OECD, 「OECD 한국 도시정책 보고서 (Urban Policy Reviews, Korea 2012)」,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2013), p. 29.

3) 두산백과-서울특별시의 인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0629&cid=40942&categoryId=31612> (2016.05.11.검색)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도시의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의 인구 조밀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었다. 서울은 도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규모 주택 건설 정책을 시행하였다. 서울의 도시계획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층화된 건축물들과 광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은 서울 근교의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신도시들을 생성하게 된다.

본인은 분당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2007년 02월부터 2010년 02월까지 3년간 분당에서 거주하며 신도시 개발을 목격하였다. 본인의 거주지기는 분당구 판교동을 중심으로 여덟 개동에 걸쳐 분당 근교에 새로운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가 형성되던 시기였다.<sup>4)</sup> 이 때문에 거주하던 집 주변으로 매일 새로운 건축물들과 아파트촌이 생성되는 풍경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거주하던 경기도 안성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아 주로 저층 건축물들이 거리에 주를 이뤘다. 따라서 분당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바뀐 생활공간은 유년 시절에 바라본 풍경과는 다른 낯선 풍경으로 본인에게는 커다란 변화이자 색다른 경험이었다. 3년의 분당 거주 이후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며 스펙터클한 고층 빌딩과 뻑뻑이 들어선 지하철 노선, 사람들의 군집을 관찰하며 도시화된 공간에서의 메마른 감성과 삭막함을 느꼈다. 또한 생활패턴과 일상적인 풍경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도시에서의 삶과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4) 분당은 1980년대 말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물색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서울 중심부에서 약 25km, 강남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경부고속도로와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등을 통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았다. 따라서 분당은 강남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고,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건설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00687&cid=51884&categoryId=53390>

(2015.12.13.검색)

##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활공간이 변하고 매체의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는 합리적인 체계를 띠게 되었고, 이에 맞춰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의 주거 공간, 건축, 도로, 시가지 등이 체계적으로 구획된 구조로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점차 편리해졌고, 이에 따라 삶이 더욱 윤택하게 변화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구조의 체계는 산업의 발달과 맞물려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유사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도시 공간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구조의 영향 아래 많은 사람들이 패턴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도시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은 사람들의 생활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인은 사람들이 도시의 구조에 적응해감에 따라 사회에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개성이 점차 망각되어 가는 것과 사람들이 삶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을 놓쳐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따라서 본인은 ‘주체적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주체적 소통’이란 헤겔의 변증법 사상<sup>5)</sup>을 비유한 표현이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서의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시험을 통해서 나와 세계의 관계를 확장해간다는 헤겔의 사상은, 본인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내적 성찰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가는 ‘의식적인 삶’과 일맥상통한다.

본인은 ‘주체적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사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사람

---

5) 헤겔 철학의 기본적인 사상은 이성·정신·개념이라는 전체론적인 실재가 자기부정을 매개한 자기운동에 의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부정에 의한 발전의 논리가 변증법이다. 모든 것은 자신 안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대립물을 산출해내고, 이러한 대립물과 자신과의 대립·부정 관계를 극복함으로써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헤겔의 사상에서는 어떠한 것도 고정되어 있거나, 정지하고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진리는 일정불변한 것으로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은 형태로 고정되고 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 없다.

황세연, 『헤겔 입문』, (중원문화, 2007), pp. 157-158, p. 169.

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2012년부터 2013년까지 <Calm City> 시리즈(도 1)를 제작하였다. <Calm City> 시리즈의 제작 당시 본인은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도시를 벗어난 이상향에서 찾기 보다는 본인이 생활하는 도시 공간에서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생활하는 서울의 외곽을 중심으로 직접 사진을 찍고, 실제 공간들을 재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사색적 기능을 위한 도시 공간을 시각화하였다.



[도판 1] <Calm City 5,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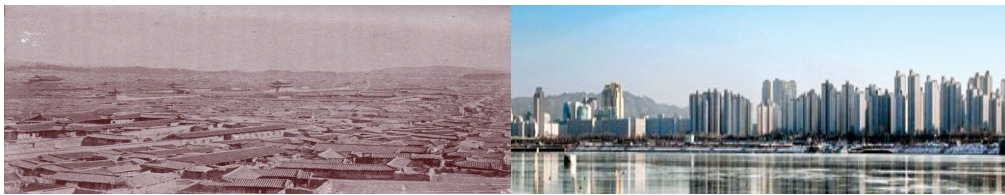
그러나 <Calm City>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본인의 작품이 자칫 단순한 풍경화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본인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본인이 주목하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과 공감을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은 패턴적인 성향의 도시와 그 안의 사회상을 담은 풍경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 과정에서 <Calm City>를 제작하기 위해 조사하고 촬영했던 차분한 인상의 도시 공간과 다양한 형상의 구조로 구성된 건축물들과 달리, 문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규격화된 도시 공간과 패턴적인 성향의 형상들로 구성된 도시의 건축물들을 주목하고, 연구하였다. 이후 2014년부터는 도시 건축의 규격화된 구조가 화면에 도식적으로 구성되는 작품을 전면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다.

## 2. 작품의 내용 연구

### 1) 도시개발에 따른 패턴화된 공간구조 고찰

한국의 도시 경관은 일제강점기에 강압적인 초기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 서구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근대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 끝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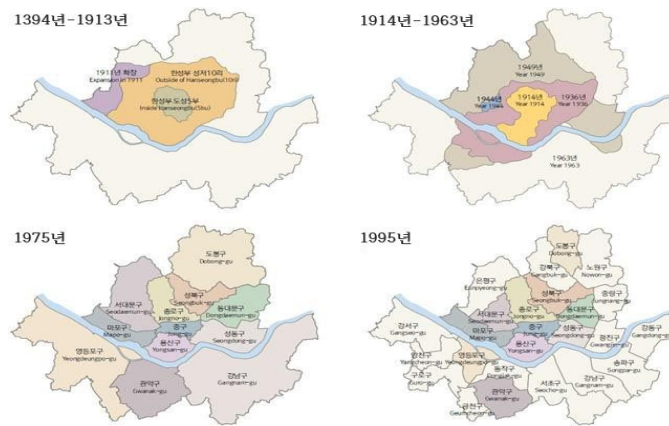


[도판 2] 1890년 서울의 스카이라인

[도판 3] 2011년 서울의 스카이라인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한 개국 이전 서울의 경관은 ㄷ자나 ㄴ자형의 단층 한옥들로 구성된 모습이였다. 강화도 조약에서 한일합방(1910)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울에 독립문(1897), 명동성당(1898) 등 새로운 건축물이 생성되면서 조선시대에 도시경관의 중추였던 성벽이 없어지고,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생겼다.(도 2,3) 1963년부터 1975년경 사이 정부에서 기능적인 구조와 경제적인 효율성에 바탕을 둔 영미권의 도시계획 모델을 수용하면서 서울의 공간구조는 점차 세분화되고, 규격화되기 시작하였다.<sup>6)</sup>(도 4) 이에 따라 미개발 공간이 줄어들면서 서울시 내부의 개발이 점차 어려워졌다. 그래서 1980년대 초부터는 수도권 외곽의 위성도시와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규모를 확장해갔고, 광대한 초고층 건축물들이 도시를 에워싸는 모습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중후반에는 오늘날의 서울의 도시 구조가 대략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images/%EC%84%9C%EC%9A%B8%EC%8B%9C7\(2\).jpg](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images/%EC%84%9C%EC%9A%B8%EC%8B%9C7(2).jpg) (2015.12.22.검색)



[도판 4]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

이처럼 도시 공간을 관찰해 보면 합리와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 도시 공간의 거리 이미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건축물이다. 건축물은 가장 눈에 띄는 표지물이다.<sup>7)</sup>

한국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서구 근대건축양식의 건축물들과 그 이후의 포스트모던 형식의 건축물들이 혼재되어 도시의 거리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인은 그중에서도 도시의 규격화된 조경 형성에 일조하는 근대 기능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건설된 건축물들을 집중적으로 주목한다. 도시 건축물들의 형상을 관찰해 보면 규격에 따라 형성된 건축물들의 창문은 모두 창틀 안에 매어 구성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도시에서 생활하며 사회구조적인 틀에 얽매인 본인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구 근대건축양식의 건축물들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수용에 의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근대화와 정비되지 않은 도시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수용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서구 근대건축양식은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불리는데, 1920년대 중반에 유럽에 등장한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의 이

7) 한국도시연구소, 『한국 도시론』, (박영사, 1999), p. 121.

념에 입각한 건축가들의 작품으로 무 장식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상자형의 형상을 띤다. 철근과 유리, 콘크리트로 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예로 커튼월(curtain wall)<sup>8)</sup>의 초고층 빌딩을 들 수 있다.<sup>9)</sup>(도 5,6)



[도판 5] 뉴욕 국제연합 빌딩



[도판 6] 서울 대명타워

이처럼 기능주의의 원리에 따라 건설된 건축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실리주의에 어울리는 안정감 있는 건축물로서 근대 이후 주거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며 건축적인 입지를 확고히 한다. 그러나 콘크리트, 유리 등 재료의 사용이 단순 육면체로 귀결되며 특히 산업 자본주의의 생산 시스템에 따라 물량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도시의 조형 환경은 급격하게 삭막해져갔다.<sup>10)</sup>

서울시와 위성도시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고려해보면, 1960년부터 근대 기능주의에 입각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8)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 칸막이 구실의 바깥벽으로,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패널은 규격화하여 통일되는 것이 특징이며 초고층건축에 많이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커튼월(curtain wal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619&cid=40942&categoryId=32339>

(2016.05.11.검색)

9) 안우진, 안우석, 고성룡, 『근대에서 현대 건축의 20장면』, (도서출판 대가, 2014), p. 83.

10) 임석재,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890~1940』, (서울: 휴머니스트, 2008), p. 118.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이 배제되고 유사한 주거 모델이 확장되면서 서로 비슷한 구조와 경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시민과 자연 경관은 분리되고, 다양성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인위적인 환경으로 대체되면서 공간의 구조가 시민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력은 파놉티콘 이념에 적용되어 더욱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그의 저서인 『감시와 처벌 (*Surveiller et punir*)』에서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고안한 감옥 파놉티콘(panopticon)의 개념을 고찰한다.<sup>11)</sup>



[도판 7]

파놉티콘(도 7)은 중앙에 위치한 감시탑의 조명은 어둡게 하고, 감시탑을 둘러싸고 있는 수용자의 방은 조명을 밝게 함으로써 감시자가 수용된 다수의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만든 구조이다. 감시자가 부재하더라도

수용자는 감시탑의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감시자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감시자가 없는 경우에도 감시 효과를 낼 수 있고, 수용자는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푸코는 이러한 파놉티콘의 논리가 실제 사회에서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푸코의 이론을 현대 도시에 적용하면 시각적 이미지가 도시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 속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유사한 삶의 모델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도시는 마치 파놉티콘처럼 통제된 공간으로 탈바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위키백과-파놉티콘,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86%89%ED%8B%B0%EC%BD%98>  
 (2016.05.14.검색)

도시의 공간 안에서 기능주의 원리에 영향을 받은 도시의 구성 요소들은 외부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구조도 규격화된 형식을 띤다. 주거 공간 및 생활공간, 업무 공간 등 내부적 구조가 합리성에 따라 구성되면서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유사한 생활 환경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한국의 건축은 실제 환경에 기반을 두어 성장하기보다는, 기능과 효율에 치중하여 만든 도시계획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신중한 재고 없이 이뤄진 서구 도시계획의 급격한 수용은 오늘날 규격화된 도시경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 생태와는 다른 환경을 조성했다. 결론적으로 일정 유형의 건축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도시의 경관은 우리의 일상에 시각적으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며, 생활환경과 일상의 인상, 삶의 방식을 획일적인 성향으로 만드는데 일조한다.

이러한 일상 공간의 변화는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점차 소모적으로 바꿔놓게 된다. 빠른 변화에 따라 장소에 담긴 기억들도 해체되어 가면서 도시는 사람들에게 삭막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으로 변화한다.

주거 환경이 한옥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로 변화하게 되면서 공간이 더욱 체계적으로 분할되고 주변에 편의시설과 주차시설이 생성되어 생활은 쾌적하고 편리해졌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건축양식과 도시계획의 고안에 공헌을 한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인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도시계획을 구상하면서 가까워진 주거지의 거리만큼 이웃끼리의 원만한 소통이 이뤄지길 염원한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 적용된 도시의 모습은 소통이 단절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도시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일상에서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조하고, 규격화된 도시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다.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추구했지만, 정작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성을 깨우는 공간을 놓쳐 온 것이다.<sup>12)</sup>

서구에서는 1920년대부터 근대건축양식이 본격적으로 도시 건축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이에 따라 근대건축양식이 적용된 건축물들이 전반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작가들이 비판적인 시각의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도판 8]

시트로앵(Paul Citroen)은 대도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면들을 담은 사진들을 포토몽타주와 포토콜라주 기법을 통해 화면에 구성한다. 시트로앵의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1923)>(도 8)는 한 화면에 도시의 여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구성함으로써 근대적 건축물로 구성된 도시 풍경의 과밀과 삭막함을 보여준다. 또한 기능주의 원리에 따라 건설된 건축물이 대표하는 구조적 안정성과 축조적 조형성이 과연 인간에게 질서를 주는 긍정적 존재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물음을 던진다.<sup>13)</sup>

이러한 서구 근대건축양식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5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도시의 경관은 근대건축양식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성 역시 내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도시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에서 여전히 획일적인 성향을 찾아 볼 수 있다. 획일적 성향의 구조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유기적인 도시환경의 구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본인은 이에 주목하여 오늘날 도시의 시각 풍경과 도시 안에서 삶의 모습을 재고할 수 있도록 진솔한 특성을 담은 도시 풍경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12) 유현준,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 (을유 문화사, 2015), p. 66.

13) 임석재, 앞의 책, p. 290.

## 2) 사회구조적인 틀과 유사한 도시 풍경

많은 사람들이 사회구조적인 틀과 생활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구조적 틀이란 사회의 전반적인 요구, 가치, 판단 기준 등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회상은 개인적 성향보다 집단적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사회구조적 틀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틀은 일상 안에서 사람들의 가치관, 행동양식 등을 유사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물론 도시에서 생활하는 개개인들이 모두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는 않으며 행동양식, 가치관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보와 물질적인 변화를 빠르게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구조적 틀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도시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사하고 패턴적인 일상을 보내며, ‘유행’이라는 사회적 기반 아래 천편일률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옷이나 상품 등을 소비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틀의 영향과 매체에서 전달하는 대세인 옷 스타일, 화장법, 머리 스타일, 음악, 미의 기준 등 규격화된 프레임의 적용은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개성의 상실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사고의 형성을 저해한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의 모습과 도시 공간 및 건축물의 패턴화가 닮아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 생각한다.

도시 풍경의 변화에 따른 패턴화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한국의 화가들은 도시와 도시 내부구조, 그에 따른 사회상을 본격적인 테마로 하여 작업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테마는 1980~90년대의 도시개발을 경험하며 성장해 2000년대 전후에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에 의해 주로 탐구되어 왔다. 많은 작가들이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도시라는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sup>14)</sup> 그중 도시 풍경과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는 작가들을 선정하여 본인 작품과의 비교

14) 김애령, 《정직성 전》, 부산: 조현화랑, 2009

출처 내오록 <https://neolook.com/archives/20090320g> (2016.05.05.검색)

분석을 통해 작품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작가 정직성은 본인처럼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화된 공간구조와 반복되는 일상의 상호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회화 작업을 통해 문제의식에 접근한다. 정직성의 2000년대 작품을 보면 서울의 삼청동, 신림동 등 골목길에서 볼 수 있는 연립주택들이 비슷한 크기로 화면 안에 나열되어 있다. 본인이 서구 기능주의에 영향을 받은 건축물을 주된 소재로 사용한다면, 정직성은 연립주택을 주된 소재로 삼는다. 본인과 정직성의 작업에서는 도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건축의 반복적인 구조를 일상의 패턴과 연결하여 표현하며, 구조의 ‘반복’과 ‘차이’에 집중한다. 정직성은 한 건축가가 설계한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연립주택의 형상에서 다양한 변화와 질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의 구조적인 특징을 포착하여 화면 안에 재구성한다. 정직성은 직접 서울의 골목길을 걸으면서 발견한 연립주택들의 구조적인 차이를 표현하여 반복적인 일상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패턴적인 건축물에 대한 인상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각적 비전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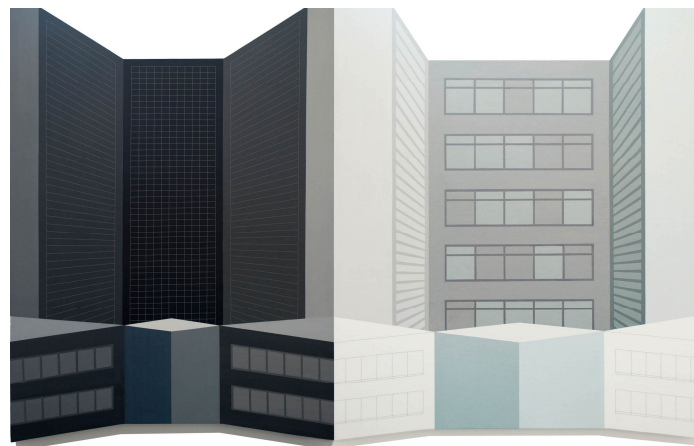


[도판 9]

정직성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조물을 표현했다면, 본인은 좀 더 안으로 들어와 내부적인 구조에 집중한다. 특히 공간관계를 화면 안에 상호 대등한 면으로 개입시키는 것은 비슷하나, 공간

상호 작용에 의해 성립된 공간 관계는 크기와 시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직성의 <신림동-연립주택 3, 2005>(도 9)을 살펴보면 비슷한 크기의 건축물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창의 구성 방식과 개수 등이 다르고, 건축물의 외형에서도 차이가 있다. 실제 존재하는 연립주택들에 대한 정직성의 관찰력이 돋보인다. 단순화하여 표현하긴 하였지만,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인간적인 감성이 묻어있다.



[도판 10]

반면 본인의 [작품 7](도 10)은 실존하는 건축물을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 본인에 의해 인위적이고, 조작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각 건축물이 완벽히 대칭을 이루지는 않지만, 대칭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의 외형 또한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정직성이 ‘반복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에 더 중점을 두었다면, 본인은 차이보다 ‘반복적인 구조 자체’에 더욱 주목하게 하여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정직성 작품의 소재인 연립주택은 다세대가 살아가는 터전이지만, 아파트처럼 한 건축물에 수천 세대가 살지는 않는다. 따라서 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규격화가 완화된 있으며 유동적이다. 본인 작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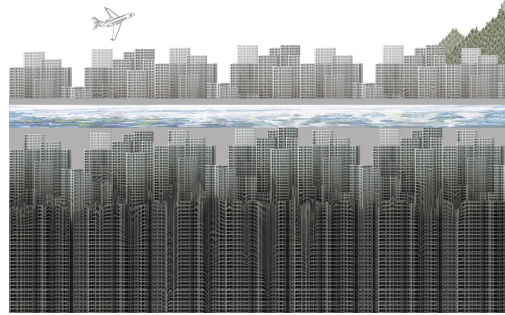
주된 소재인 아파트와 오피스 건축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건축물의 외형 및 내적 구조 역시 더욱 규격화 되어 있다. 본인의 작품은 정직성의 작품에 비해 입체적으로 반복되는 느낌을 준다. 패널 외각구조의 꺾임은 시각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더욱 부각 되도록 한다.

기능주의에 영향을 받은 건축물들은 편의성이 우수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나 일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사람들과 쉽게 떨어질 수 없는 일상 공간의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회적 틀의 영향을 온전히 벗어나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전 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의 가치, 요구 등에 의문을 느끼면서도 그 틀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일상의 유형과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치 사회적 존재 기반에서 이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처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회의 틀과 그로 인한 일상에서의 '반복적인 구조'를 건축적 요소를 통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집중한다.

또 다른 작가 한정선은 사람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풍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지만, 사람들 역시 매일 마주치는 풍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한정선은 도시를 구성하는 풍경을 관찰하면서 거대한 아파트 단지, 도시 안의 인공적 자연을 고찰한다. 한정선은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기능과 효율에 치중한 '아파트'라는 건축물을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반복되게 표현함으로써 편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낸다. 본인은 회화 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지만, 에스키스 단계에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식적인 구조의 단위를 더욱 정교한 수치로 구성하여 반복되는 구조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한다.



[도판 11] <Apartment block, 2012>



[도판 12] <Apartment block 1, 2012>

한정선의 <Apartment blocks>(도 11,12) 시리즈는 하나의 건축물이 화면 안에서 반복적으로 구성되며, 거대한 수평적인 군집을 이룬다.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계속 복사하여 레이어의 중첩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확장되는 공간을 구성한다. 본인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틀과 소비주의에 따른 획일적인 성향을 도시 풍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반복적인 구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도판 13]

본인의 [작품 6](도 13)은 한정선의 작품처럼 수평적이고 세밀한 단위로 소재의 반복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고층 건축물의 구조적인 반복을 통해 도시 풍경을 고찰한다. 또한 한정선은 레이어의 중첩을 통해 반복을 표현하는데, 레이어는 디지털 상에서 쉽게 생산되고 삭제된다. 이는 도시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유행 등 너무 쉽게 생성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도시의 풍경과 사회상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한정선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본인 역시 오랜 시간 아파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아파트는 합리적인 공간 구성에 따라 편리함과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치 각자의 개성이 망각되어가는 사회상을 반영하듯 유사한 도시경관 형성에 일조한다. 이에 따라 본인과 한정선은 밀집된 건축구조를 일정 거리에서 바라보는 구도로 화면을 구성하여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스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고자 한다.

본인은 건축물의 구조를 화면 안에 구성할 때 평면적이고 도식적으로 구성하여 도시 건축물의 규격화된 구조를 표현한다. 도시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며 시각적 풍경에서도 역시 다채로운 구조의 건축물들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대체로 표정이 없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고 화려한 간판이 내걸리지만 그것이 뿌듯한 즐거움을 선사하지는 않는다.<sup>15)</sup> 이처럼 본인은 실제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여 현대 도시의 풍경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작가 본인이 속한 환경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을 절제하고 도식화된 구조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현재의 규격화된 성향의 사회상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

15) 김찬호,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2002), p. 9.

### 3. 작품의 조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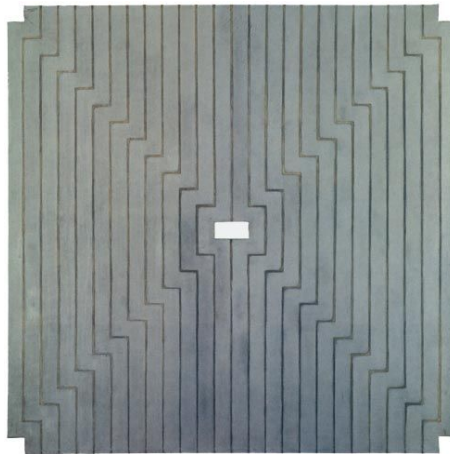
#### 1) 건축적 형태의 패널

본인은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각 형태의 캔버스나 패널을 사용하기보다는, 패널의 형태를 직접 구상하고 주문 제작하여 화면 내부를 구성하는 형태와 패널의 외각 형태가 연결되도록 한다. 패널은 바닥이 단단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캔버스 천에 비하여 외부적인 영향에 따른 팽창과 수축이 덜하다. 따라서 패널의 평평한 화면은 물감층의 두께 차이에 의해 구조를 표현하는 본인의 작품을 표현하기에 용이하다.

작품 제작 초기인 2014년에는 본인이 생활하는 서울 거리의 건축물을 관찰하면서 각각 건축물의 고유한 크기와 배치에 근거하여 나무 패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거나, 창문의 프레임 형상을 활용한 패널을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화면 내부에 구성된 건축구조를 시각적으로 더욱 부각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패널들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표현 형식의 계기를 얻게 된다. 사다리꼴의 패널, 변이 여섯 개, 여덟 개 등 다양한 형태의 패널들을 관찰하며 건축물의 기둥이나 지붕의 형상을 연상해보기도 하고, 반복되는 구조를 표현하는데 건축물 이외의 여백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구조의 강조를 시도한다. 패널 외각의 형상에 따라 화면 내부의 건축적 이미지와 유기적인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더욱 입체적인 작품을 만든다. 본인은 이처럼 외각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형된 패널을 ‘건축적 형태의 패널’이라고 명명한다. 건축적 형태의 패널은 작품의 외각에서부터 건축적인 구조가 전면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각 형태의 패널보다 실질적으로 건축의 구조를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사각 형태의 캔버스나 패널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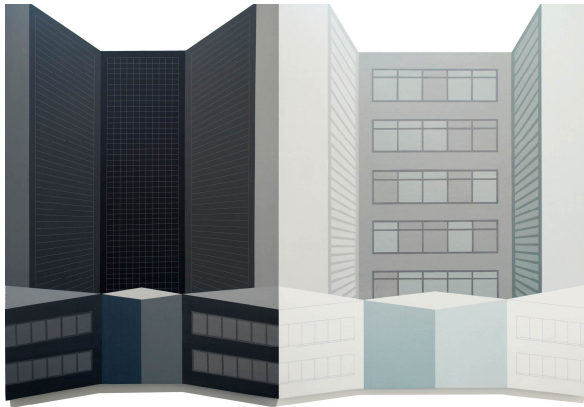
형태의 캔버스를 사용하는 작가로는 단연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를 꼽을 수 있다. 프랭크 스텔라는 캔버스의 외적 형태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상을 화면 내부적으로 반복하여 패턴적인 고유 형상을 도출한다. 그의 작품은 평면을 기반으로 하지만, 벽에 걸었을 때 앞으로 돌출되는 특성이 있어 입체적인 조형성을 띠고 있다. 본인의 작품도 평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약 5cm가량 두께의 패널 위에 미묘한 물감층의 두께 차이로 원근을 표현함으로써 부조적인 공감각적 표출을 시도한다.



[도판 14] <아비세나 (Avicenna, 1960)>

스텔라는 초창기 <검은 회화(Black Paintings)> 시리즈 이후 <은회색 알루미늄(Aluminum Paintings)>(도 14)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변형된 형태의 캔버스를 시도한다. 이는 본인처럼 캔버스 자체의 프레임이 우선된 다음 그 내부가 채워진 것과는 달리 운동하는 줄무늬 움직임의 표현에 방해가 되는 귀퉁이나 모서리를 제거한 것이 기원이며, 그것은 두드러진 작품의 물성과 구조를 더욱 강조한다.<sup>16)</sup> 즉, 줄무늬가 뻗어나가는 방향에 맞춰 외각의 형태를 구성함으로써 계속 확장해 가는 듯한 무한한 공간성을 보여준다.

16) 강태희, 『프랭크 스텔라: 아방가르드의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도서출판 재원, 1995), p. 17.



[도판 15]

본인의 [작품 7](도 15)은 패널 외각의 꺾임에 따라 화면 내부의 건축적인 구조가 구성된다. 패널 외각의 꺾임에 따른 반복되는 구성과, 그에 맞춰 화면 내부의 음영을 표현함으로써 입체적으로 구조를 강조한다. 또한 스텔라의 작품과는 달리 건축적

형태의 패널을 통해 확장된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닫힌 건축적 공간을 표현함으로써 규격화된 구조를 극대화한다.

한편 프랭크 스텔라의 변형된 형태의 캔버스는 1960년대 그린버그의 후기 회화적 추상의 경향을 나타낸다.<sup>17)</sup> 본인처럼 재현적 성격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으며, 회화적인 환영을 피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형태만 남기고 배경적인 부분은 잘라낸다. 스텔라는 화면 내부를 공간성 없이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본인은 공간성을 내포하는 화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변형된 형태의 외각 구조는 불필요한 배경을 생략함에 따라 화면 내부의 구조에 더욱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며, 평면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오브제적인 표현으로써 작품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7) 후기 회화적 추상이란 색채의 명암대비가 강하고, 터치나 페인트가 뜨겁게 교차하는 추상 표현주의의 다음에 일어난, 차가운 추상 계열의 작품을 가리킨다. 즉 '회화적'이었던 추상 표현주의를 정리하고 초월하는 새로운 회화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폴록이나 드 쿠닝을 무조건 비판의 목표로 삼거나, 추상표현주의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액션 페인팅을 부정적으로 승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액션 페인팅이 지니고 있는 유연성을 미학적으로 순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루이스(Morris Louis), 젠킨스(Paul Jenkins), 올리츠키(Jules Olitski), 놀랜드(Kenneth Noland), 켈리(Ellsworth Kelly), 스텔라(Frank Stella) 등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이 계열의 추상은 명확한 형태를 지니고, 명도 높은 맑은 색면에 의해 구성된다. 또한 작가의 개성적 표현을 가능한 억제시키는 것이 특징으로, 주로 하드에지(Hard Edge) 계열의 표현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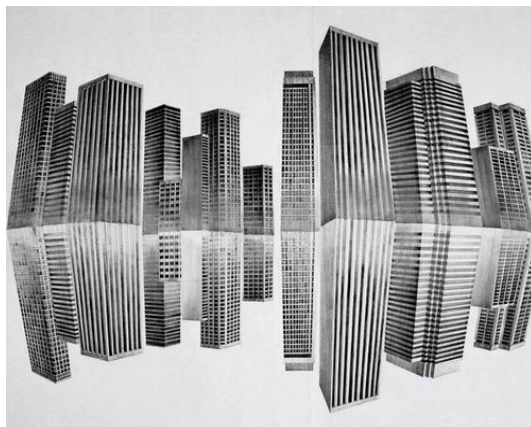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후기 회화적 추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5425&cid=42642&categoryId=42642>  
(2016.05.09.검색)

## 2) 건축구조를 통한 화면구성

화면 구성이란 주어진 화면의 테두리 안에 소재들을 알맞게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본인은 건축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면을 구성한다. 건축물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규격화된 성향의 건축물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며, 패널 외각의 형상에 맞춰 화면 내부의 건축구조를 조작적인 구성을 통해 표현한다.

많은 작가들이 건축적인 구조를 화면 안에 다뤄왔지만, 본인은 건축구조를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표현하고 있는 다른 작가의 작품을 연구하고, 본인 작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구성적인 표현 형식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



[도판 16] <Illusion 04, 2005>

작가 이여운은 본인처럼 기능주의 건축을 소재로 화면을 구성하여 도시 풍경을 표현한다.(도 16) 인간이 부재하고, 건축물들이 기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풍경은 도시에 대한 작가의 인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여운 작품의 풍경은 본인의 작품과 같이 실경이라기보다는 도시에 대한 개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여운은 도회인으로서의 실존적 감정과 소외나 고독, 공허감 같은 것들을 고층건축물을 통해 그래픽적으로 선보여 왔다.<sup>18)</sup> 본인과 이여운이 작품

의 소재로 사용하는 기능주의 건축은 기능에 치중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건조한 인상을 준다.

전술한 건축 양식에 따른 건축물들이 구성되어있는 서울의 명동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는 거리가 인파로 가득 메워져 화려해 보이지만, 새벽에 상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면 명동 거리에는 공허와 정적만이 맴돈다. 사람이 없는 명동 거리의 건축물들은 일정 패턴의 외형 자체만으로 거리에 황량함과 공허를 더한다.(도 17,18) 본인은 이처럼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기능주의적인 건축의 외적인 구조로부터 규격화된 사회상을 표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를 화면 안에 중점적으로 구성한다.



[도판 17] 붐비는 시간대의 명동



[도판 18] 새벽시간대의 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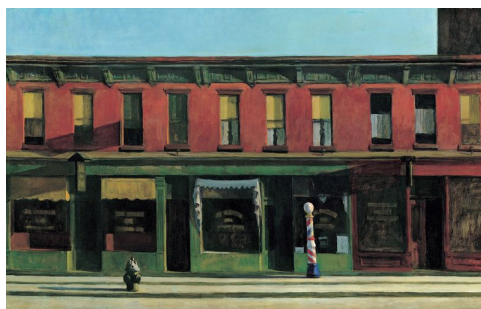
이여운은 여백의 화면 안에 원거리에서 바라본 도시건축의 군집을 마치 물에 비친 듯 수직적인 대칭구도로 구성한다. 무엇이 실재이고, 환영인지 모호하게 표현하여 익숙한 풍경을 낯선 이미지로 전환해 일상 풍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인은 이여운의 작품 보다 근시적인 거리에서 바라본 건축구조를 여백 공간 없이 주로 화면에 수평적인 대칭 구조로 구성하여 매일 크게 변화되지 않는 일상을 보내는 도시인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내포한다. 또한 이여운의 작품과 달리 건축물의 파사드(façade)를 화면 안에 전면적으로 구성하여 반복적인 구조가 더욱 강조되도록 한다.

18) 박영택, 《이여운 전》, 서울: 문화일보갤러리, 2005  
출처 네오룩 <https://neolook.com/archives/20051110e> (2016.06.10.검색)

### 3) 절제된 색채

본인은 재현적인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색을 인위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할 때 화면 안에서 색감보다 구조에 시선이 더 주목될 수 있도록 한다.

색에 대한 정보가 절제되면 구조에 대한 정보는 더욱 강조된다.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대상의 다양한 색을 정보로 받아들이지만, 그 색의 사용이 절제되면 구조의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



[도판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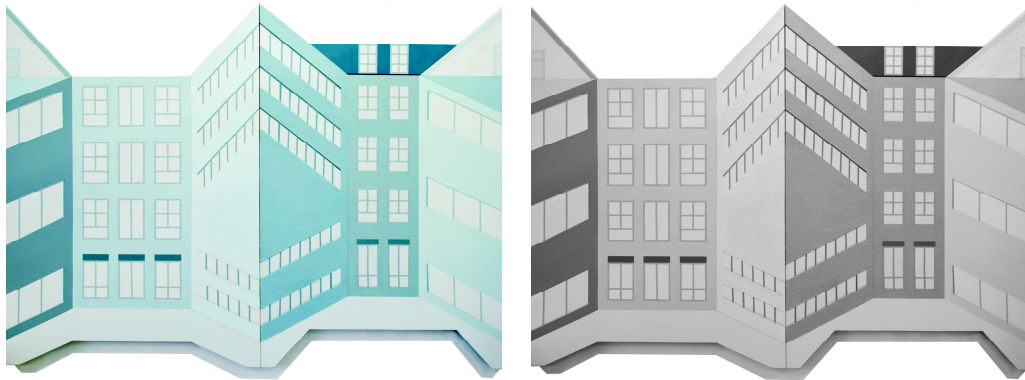


[도판 20]

본인이 소재로 활용하는 기능주의 건축이 등장했던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의 작품에서 당대 건축물과 사람의 구성을 통해 20세기 미국인의 삶의 단면을 담담하고 무표정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에드워드 호퍼의 <이른 일요일 아침(Early Sunday Morning, 1930)>(도 19)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건축물의 구조만 표현되어있다. 호퍼는 건축물의 일부를 포착하여 화면에 구성하고 사실적인 색채로 표현하였는데, 그의 작품에서 소재로 사용한 건축을 흑백으로 사진 촬영한 <15번가와 16번가 사이에 있는 7번가(Seventh Avenue between Fifteenth and Sixteenth Streets, 1914)>(도 20)와 비교해 보면 [도판 20]에서 도시건축의 구조가 더욱 강조되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실제 색상에 기반을 둔 색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지 않고, 주로 한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거나 백색, 회색, 검은색 등 무채색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도판 21]

위에 제시한 그림은 본인의 [작품 2]를 칼라사진과 흑백사진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것이다.(도 21) 흑백사진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가진 정보를 배제하는 과정 속에서 대상을 오히려 드러내고 강조한다. 본인의 작품을 칼라사진과 흑백사진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칼라사진에서보다 흑백사진에서 대상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더욱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색조가 절제된 무채색 계열의 사용은 주로 명도와 채도에 관여할 수 있다. 본인은 물감을 섞는 과정에서 백색과 회색, 검은색을 통해 채도와 명도를 조절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처럼 대상의 명암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화면 내부에 구성된 구조의 꺾임에 따라 색의 명도를 대비되게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개념을 강조하거나, 구조가 부각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본인은 더욱 효율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드러내고, 이러한 구조가 야기하는 도시의 인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무채색 계열의 색채 사용은 급격하게 전개된 근대화와 도시화에 따라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들의 재료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의 전통적 건축인 한옥은 인공의 재료가 아닌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주된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인위적이지 않은 색상을 띤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경제성과 지속성,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된 건축 자재가 시멘트와 콘크리트, 유리, 금속으로 바뀌면서 색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서 한국의 시멘트 공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되었다. 이에 따라 쌍용, 한일,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등 많은 시멘트 회사들이 건설되었다. 1971년에는 대한민국의 시멘트 생산능력이 700만 톤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로도 토목사업 위주의 경제성장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총 시멘트 생산량이 6,000만 톤으로 역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은 2009년을 기준으로 세계 7대 시멘트 생산국이며, 세계 5대 시멘트 소비국에 등극하였다.<sup>19)</sup> 이처럼 한국은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시멘트를 소비하여 도시를 팽창하면서, 도시의 경관은 인위적인 색상을 띠게 되었다.

현대 도시의 풍경은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들의 건설자재로 시멘트뿐만 아니라 금속, 유리 등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되면서 다양한 색상을 띠게 되었지만, 본인은 작품을 통해 현대 도시를 무채색에 가까운 풍경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 도시에 대한 인상을 보여준다. 본인에게 있어 무채색은 감정이 절제되고, 인공적인 색채로 인식된다. 현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현대 도시의 풍경은 다채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반복적인 구조들이 내포되어 있어 무채색의 색상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인위적이며, 단조롭고 건조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본인은 완벽하게 무채색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현대의 도시가 아직은 완전히 메마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각각 사람들의 고유한 개성이 점차 망각되어가는 사회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감성을 색상 표현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남겨두고자 한다.

---

19) 위키피디아-시멘트,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9%98%ED%8A%B8> (2015.12.25.검색)

#### 4) 반복과 도식화

본인은 화면 안에 배치된 건축물의 규격화된 구조가 부각되어 표현될 수 있도록 건축구조를 더욱 반복적으로 구성하거나 도식화하여 표현한다. 도식화란 사물의 본질이나 특성을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을 뜻한다. 본인은 작품을 제작할 때 반복이나 도식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가들의 작품과 본인 작품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인 작품에서 반복과 도식화라는 조형적 표현의 의미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자 한다.



[도판 22] <파리 서민주택,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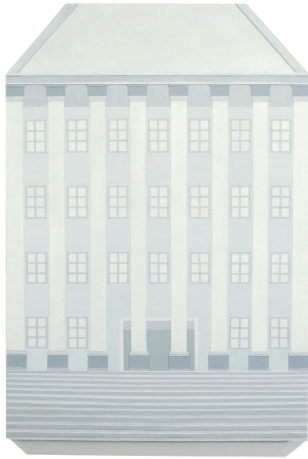


[도판 23] <어린이회관, 2010>

작가 김수영은 화면 안에서 건축적 구조의 반복이 돋보이는 작품을 제작한다. 김수영의 유학시절 초기 작품들은 서구 도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근대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작품을 소재로 하였고(도 22), 한국에 귀국한 뒤에는 한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근대적 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도 23)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들은 이상적인 형태와 색채의 사용, 실용적인 공간 분할이 특징이다. 김수영은 편리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기능에 따라 형태가 구성된 건축이 지니고 있는 구조의 반복을 통해 3차원의 건축물을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긴다. 김수영의

작품은 본인의 작품보다 화면 내부에 구성된 건축적 구조가 더욱 세밀한 단위로 반복된다. 김수영은 작품 제작 초기에 르 코르뷔지에 건축의 색채 구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태를 반복해서 표현하였다. 이러한 색채 구성은 전면이 유리로 이루어진 기능주의 건축에 대한 관심과도 연관이 있었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근대 기능주의 건축은 값싼 콘크리트와 강철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였지만, 이후 새로운 재료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유리 창문이 전면적으로 부각된다. 유리로 만든 창문은 빛의 투과도와 각도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상의 색채를 달리 보이게 한다. 김수영은 이러한 색채 변화를 포착하여 화면 안에서 반복적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구조에 빨강·노랑·파랑 등의 강렬한 색채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화면에 생동감과 리듬을 주었다. 김수영의 작품은 실제 도시에서 포착한 풍경을 화면 안에서 재구성 없이 재현함으로써 구상적인 성격을 띤다. 하지만 건축구조의 반복적인 구성을 통해 재현적인 풍경을 기하학적인 추상적 풍경으로 변화시킨다. 한편 김수영은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색의 사용을 절제하여,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형적인 리듬감을 표현하는데 주력한다.

본인은 반복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리듬과 색채의 표현에 주목하기 보다는 구조의 구성자체에 더욱 집중한다. 김수영은 건축물을 화면에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잘라내어 구성한다. 또한 캔버스의 외각에 맞춰 형태를 단정하지 않고, 계속 확장되도록 표현하여 무한한 공간성을 표현한다. 김수영은 건축물의 구조를 묘사할 때 본인처럼 자세한 묘사를 생략하거나 도식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붓 자국을 그대로 두어 인간적인 감성을 남겨둔다. 하지만 화면을 구성할 때 자신의 내적 감정의 이입보다는 형식 구성 자체를 더욱 중시한다. 대상을 일정 거리에서 관조적으로 표현하여 구조가 형성하는 스펙터클한 리듬에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도판 24]

본인은 [작품 1](도 24)을 제작할 때 김수영의 작품처럼 화면 안에서 건축 구조를 잘리게 표현하여 확장되는 공간처럼 표현하지 않고, 건축구조 자체가 화면을 가득 채우도록 구성하여 완결된 공간으로써 무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형상을 통해 사회적 틀에 대한 심리적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며, 전형적이고 닫혀있는 사회의 모습을 극대화하여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김수영의 작품에서 건축구조의 반복을 찾아볼 수 있다면, 배문경의 작품에서는 형상의 반복과 도식화를 살펴볼 수 있다. 배문경은 설치를 통해 작품을 구성한다. 보편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점차 비개성화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느낀 답답함과 위기감을 복제와 반복을 통해 표현한다. 본인처럼 도시 건축을 소재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도식화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배문경의 <Cloned Me, 2014>(도 25)는 수십 개의 모듈이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작품이다. 각각의 모듈은 작가 본인의 전신 실루엣을 레이저로 잘라낸 것이다. 자신감 있게 양손을 허리에 받치고 있는 모습, 멋지게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넘기는 모습, 양팔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앞을 응시하는 모

습으로 총 세 개의 포즈이다. 이 세 개의 포즈로 병렬적이고 일률적으로 작품이 구성된다.<sup>20)</sup>



[도판 25]

작품을 구성하는 모듈들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직사각형 판재를 활용하여 제작된다. 실루엣에 따라 레이저로 잘라낸 부분은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받침대로 활용하여 전체적인 설치작품을 구성한다. 총 아홉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의 판들은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된다. 각 판들에는 도식적인 인물 실루엣 모듈들이 반복되어 정렬되어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실루엣들의 군상은 사회의 보편적 틀에 대한 압박감을 표현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건축구조들의 반복 역시 사회적인 요구와 가치 등의 보편화에 따라 고유한 개성을 망각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며, 사회상에 대한 압박감을 표현한 것이다.

20) 정종구, 《배문경 전》, 대구: 봉산문화회관, 2014  
출처 네오룩 <https://neolook.com/archives/20140425f> (2016.4.28.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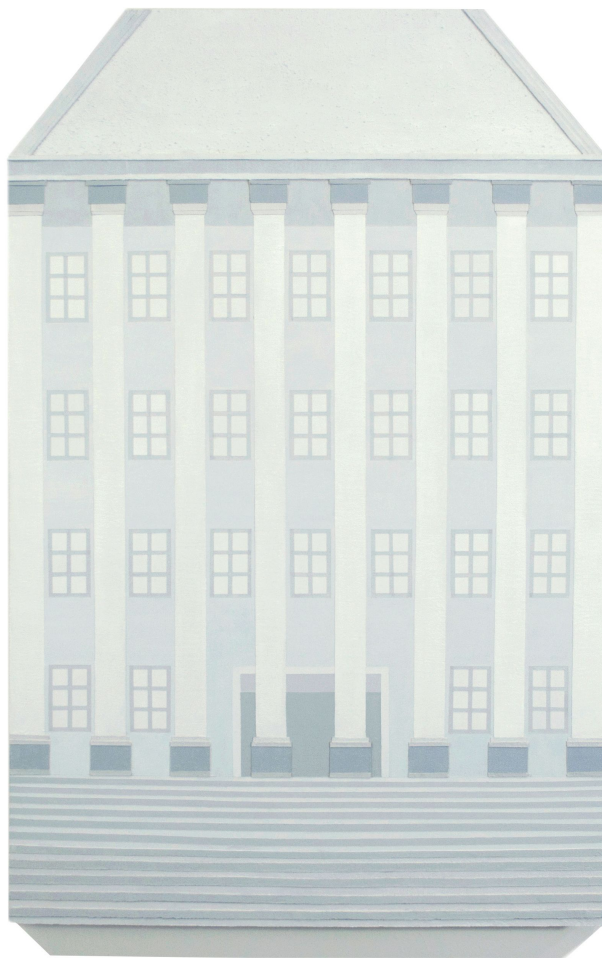


[도판 26]

배문경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판재를 레이저로 잘라 도식화된 인물을 반복한다면, 본인은 인물을 묘사할 때 묘사 방식을 반복하여 표현한다. 본인의 [작품 3](도 26)의 인물들은 성별이나 인상착의가 다르지만, 서로 큰 차이가 없는 포즈를 취하고 있고 동일한 흰색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각각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동일한 건식 재료로 드로잉 하듯이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의 양과 붓질 표현 등을 유사하게 하여 인물들의 재료적 속성과 표현 형식을 반복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방식으로 표현된 인물들은 현대 사회에서 유사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노출된 사람들의 모습을 내포한다.

배문경의 <Cloned Me>를 구성하는 인물의 포즈는 전술한 세 개의 포즈로서 당당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이다. 이는 사회상에 대한 작가의 저항의지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품의 재질인 스테인리스는 주변 풍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성질이 있다. 이는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보다 사회의 요구에 자신을 맞춰가는 사회상을 표현한 것으로, 사회적 틀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본인의 [작품 3]의 인물들 역시 주변의 건축구조보다 존재감이 흐리게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본인과 배문경은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을 도식화된 표현 형식의 반복을 통해 제시하고, 작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표현 행위를 통해 수양적인 시간을 담음으로써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 또한 제기한 문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4. 작품분석



[작품 1] <Reflection 1>, 2015, acrylic on panel, 119.7×77.5cm

[작품 1]은 경희대학교 본관의 외형을 직접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 속 형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패널들을 활용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변이 여섯 개인 패널의 형태를 보고 경희대학교 본관의 형상을 연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패널 외각의 형상과 유사한 형상의 건축구조를 화면 내부에 매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경희대학교의 본관은 경희대 초대 총장인 조영식이 설계를 맡았고, 1956년에 준공돼 지어진 지 60년이 된 건축물이다. 경희대학교 본관은 서구 로마 건축양식이 반영된 건축물로, 이처럼 20세기 초중반에 건설된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서구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은 한국 근대건축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작품 1]은 직접 찍은 경희대 본관의 사진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형상을 최대한 평면적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한다. 실제 경희대 본관의 외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반복적인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형태를 더욱 유사하게 단순화시키고, 같은 형태의 창문을 반복하여 구성한다. 이때 창문은 모두 닫혀있는 창문으로써 소통의 부재를 표현한다. 본인은 평면의 화면 안에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 원근을 설정할 때 전통적인 원근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물감층의 두께에 따라 화면 안의 깊이를 설정함으로써 건축물의 패턴적인 구조들이 더욱 돋보이도록 구성한다. 실제로는 거리의 차이가 크게 나는 공간이지만, 본인은 실제적인 거리를 단축하여 표현함으로써 패널 화면에 공간의 깊이를 조성한다. 화면 안에 구성된 각 구조의 구획에 따라 실질적인 물감층의 두께는 1mm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본인의 작업에서 저부조적인 구조 표현은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화면의 깊이를 설정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실제보다 도식적으로 화면을 구성하지만, 패널 외각의 형태를 실제 건축물의 형상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표현하는 것처럼, 화면 내부에서도 건축물의 실질적인 디테일을 표현하

고자 한다. 실제로 건축물을 건설할 때 시멘트와 돌을 건설자재로 사용하는 것처럼 돌가루와 겔(Gel-Medium)을 섞은 겔스톤(Gel-Stone)과 텍스처 첨가제인 롤어텍스(Roll-A-Tex)를 사용하여 건축물 외벽의 질감을 표현한다. 본 작품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구조에 기반을 두고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적인 존재를 재현하는 차원에서 실제 건축물에서 보이는 질감을 화면 안에서도 묘사하고자 한다.

본인은 동일한 평면 안에서 물감층의 미묘한 두께 차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매끈한 표면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변이 여섯 개인 패널의 표면 위에 핸디코트를 얇게 바르고, 사포로 갈아 패널의 나뭇결을 없애고 평평한 표면을 만든다. 그 후 핸디코트의 약한 점성을 보완하고 나무로 제작된 패널의 수액 등 분비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든(Golden)사의 바탕칠 보조제(GAC-100)를 물과 1:1의 비율로 섞어 3~4번 코팅해준다. 그 후에 젯소를 3번 정도 칠해 표면처리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처리된 패널의 평평한 표면은 물감층의 차이에 따른 화면의 깊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해진다. 처리가 끝난 표면 위에 옅은 색의 수성 색연필로 자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골조들을 스케치한다. 이 스케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접 찍은 구조물의 형태를 도식화해서 일정 크기로 확대한 후 패널에 옮긴 것이다. 스케치가 끝나면 직선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깔끔하고 견고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해진 구간에 백색 마스킹테이프로 테이핑한다. 테이핑은 일차적으로는 물감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테이프로 인한 요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테이핑의 속성 자체가 동일한 크기로 반복되어 감겨있는 공산품이라는 점에서 반복적 구조를 강조하는 본인 작품의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한다. 백색 마스킹테이프만으로는 온전히 물감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부착된 테이핑에 겔을 발라 접착력을 강화한다. 테이핑한 곳에 나이프로 겔스톤과 롤어텍스를 평평하게 바르고, 완

전히 마르면 테이프를 떼어낸 후 마무리로 커팅 작업을 해서 최대한 직선적인 건축물의 외곽선이 정교하도록 표현한다. 젤스톤으로 두께를 표현할 때는 바르는 횟수에 따른 중첩방식을 사용한다.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계단, 천장, 기둥 순으로 젤스톤과 물어텍스를 여러 번 중첩하여 표현하고, 그 외 부분은 아크릴 물감의 중첩 횟수에 따라 공간감을 나타낸다. 정해진 구획에 따라 5번~10번, 10번~20번, 20번~30번, 30번~40번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붓질의 횟수 차이에 따라 형성된 물감층의 두께를 통하여 평면을 기본 바탕으로 한 부조적인 속성의 작품을 제작한다.

본인은 아크릴 물감을 주로 사용하는데, 아크릴 물감은 에스테르 수지로 만들어진 재료이다. 물감의 성분인 플라스틱 폴리머의 차갑고 건조한 느낌과 더불어 인공적인 성분이라는 점에서 딱딱하고 차가운 기능주의 건축의 구조를 표현하는 본인의 작품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화면 안에 구성된 규격화된 구조에 시선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색의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여 사용한다. [작품 1]은 전체적으로 흰색에 가까운 푸른 계열의 색상을 사용한다. 티타늄화이트(Titanium White), 라이트 블루 바이올렛(Light Blue Violet), 프렌치 그레이(French Gray)를 주로 사용하고, 채도가 낮은 콘크리트 건축물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색을 섞을 때 주로 티타늄화이트를 7:3의 비율로 섞어 흰색이 화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한다.



[작품 2] <Reflection 6>, 2015, acrylic on panel, 120×80.5cm,  
120×78.1cm/each

본 작품은 기존의 작품제작 방식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사진 촬영한 대상을 활용하지 않고, 건축구조의 조작적인 구성을 통해 화면 내부를 표현한다. 기존의 작품이 패널 외각의 형태와 유사한 실재 건축구조를 화면 내부에 구성했다면, 본 작품은 실존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실재 건축물의 특징에 기반을 뒤서 연상한 건축구조를 인위적으로 구성한다. [작품 2]는 두 개의 패널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이미 형태가 정해져 있는 패널과 연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보유하고 있는 패널 중 높이가 같은 패널끼리 붙여도 보고 여러 조합을 시도해 보면서 구조와 반복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고자 한다. 높이가 같고 서로 형태가 유사한 두 개의 패널을 붙여 화면 내부구성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고, 패널 외각의 형태도 꺾임의 반복을 보여주어 내부 및 외부적으로 반복적인 구조를 강조한다.

본 작품의 패널 외각의 형상에서 연상한 것은 주택형식의 건축물이다. 도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택형식 중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은 대부분 5층 이하의 건축물들이 많다. 창문은 장방형 형태로 창문의 크기나 배율, 구성형태 등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일자형이나 십자형 창문이 가로로 길게 배치되거나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된다. 건축물의 구조, 창문의 형태와 창문과 창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한 구조물을 연상하여 패널 화면에 구성한다.

[작품 2]는 두 개의 패널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지만, 각각 패널의 외각과 내부의 화면구성은 완전한 대칭이 아니며, 건축물들의 형상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유사한 사회구조 안에서도 남아있는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표현한 것이다.

본인은 도식적인 화면 구성을 위해 패널에 스케치하기 전 방안지의 규격에 맞춰 형태를 구상하고, 구상이 확정되면 일러스트와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에스키스를 한다. 물감의 두께 차이에 따른 원근을 미리 계산하고, 색상과 구조를 재정비하여 컴퓨터에서 에스키스를 마무리하면 실제로 패널에 옮긴다. 본인이 소재로 사용하는 서구 기능주의 건축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실존하는 기능주의 건축물들의 형상을 관찰하며 연상한 건축구조들을 다시점으로 표현하여 화면에 조합한다.

[작품 1]에서 젤스톤(Gel-Stone)과 롤어텍스(Roll-A-TEX)의 사용이 도식적 구조의 강조를 오히려 저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재료의 사용방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물성 자체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위해 테이프를 바꿔서 사용해 보았다. 백색 마스크테이프는 오랜 시간 표면에 접촉해 두고 제거하면 표면에 잔사가 많이 남고, 제거하는 도중 테이프가 사선으로 찢어져서 직선적인 느낌을 깔끔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제거했을 때 잔사가 남지 않는 내열마스크테이프#244를 사용하여 테이핑한다. 이전 작품에서 젤스톤이 정해진 구획에서 새지 않도록 사용한 백색 마스크테이프의 두께가 젤스톤이 중첩되는 두께보다 현저하게 얇아, 젤스톤이 마른 후에 테이프를 제거하고 칼로 커팅을 해도 깔끔한 직선이 유지되지 않았다. 그래서 [작품 2]에서 젤스톤을 사용할 때는 두께가 있는 양면 폼 테이프를 사용하여 젤스톤의 두께와 테이프의 높이를 일치시켜 직선이 유지되도록 한다. 내열마스크테이프#244는 일반적인 백색 마스크테이프보다 잔사가 남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져서 비교적 효과가 있었으나, 양면 폼 테이프를 사용하여도 젤스톤은 완벽하게 직선적인 틀로 표현하기는 힘들었다. 젤스톤을 나이프로 바르는 과정에서 회화적인 터치가 화면에 많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 정교하고 깔끔한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젤스톤과 롤어텍스의 사용을 줄이기로 한다.

[작품 1]에서는 주로 색상의 명도를 높이고 채도는 낮춰 표현하였는데, 그

러다 보니 건축구조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무게감이 실제보다 가볍게 표현되었다. [작품 2]에서는 티타늄 화이트의 사용 비율을 7:3에서 5:5로 줄여, 색상의 명도는 조금 낮추고 채도를 높여 사용함으로써 건축구조가 지니고 있는 무게감이 [작품 1]에서보다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작품에서는 한 색 계열의 푸른 색상이 작품의 주된 색채로 구성된다. 한색은 차가운 느낌의 색상으로 규격화되고, 건조한 느낌의 건축구조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완전히 무채색만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정한 계열의 색상으로 구조를 표현한다면, 여러 색상의 대비로 인한 시선의 분산 없이 화면 안에 구성된 건축적 구조가 강조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티타늄화이트(Titanium White), 프렌치 그레이(French Gray), 세룰리안블루(Cerulean Blue), 퍼머넌트 블루 라이트(Permanent Blue Light), 피콕블루(Peacock blue) 등을 주로 사용한다.



[작품 3] <Reflection 4>, 2015, acrylic on panel, 45×119.9cm

[작품 3]은 거리의 풍경을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본인이 자주 방문하는 서울 압구정의 실제 거리를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 속 건축물들의 형상을 토대로 화면을 구성한다. 화면의 모서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창문틀의 형상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변이 여섯 개인 패널의 형상을 보고, 창문의 틀을 연상하여 화면 내부에 구성한 것이다. 외각의 여섯 개의 변을 따라 마치 액자의 형상처럼 젤스톤을 일정 두께로 발라 내부의 구조를 가두는 것처럼 표현한다. 이러한 창문 형태의 프레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주는 구속의 틀로서 사회적인 구조와 시선을 시각화한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틀은 한 개인이 주체적으로 그 틀의 형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 정해진 패널의 외각 자체가 패널 내부의 구성을 제한함으로써 전술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다.

직선적인 표현을 저해하는 젤스톤(Gel-Stone)과 롤어텍스(Roll-A-TeX)는 최소화하여 외부의 틀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아크릴 물감만을 사용한다. 전체적인 구도는 원거리에서 바라본 길거리의 모습으로 일상적인 도시의 풍경을 담는다. 건축물의 파사드(façade)를 전면으로 내세웠던 작품들과 달리 사람들을 표현함으로써 일상의 단면에 더욱 가깝게 접근하고자 한다. 도시 거리에는 각자의 개성과 목적성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본인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수성 색연필로 드로잉 한 부분을 아크릴 물감으로 명도 차이만 남겨 두고, 자세히 묘사한 부분을 생략시킴으로써 존재감이 최소화되도록 표현한다. 사람들의 성별과 인상착의 등 각각의 외형적 개성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묘사 정도와 질감, 포즈, 색상 등 특징을 부각하지 않고 티타늄화이트(Titanium White) 물감을 화면에 고르게 발라 단순하고 유사하게 표현하여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패턴적인 삶의 단면과 그 안에서 개인의 존재감이 상실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화면

안에서 인물이 건축물보다 앞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 밝은 명도로 가볍게 그려진 인물에 비해, 인물 뒤편에 있는 건축물은 어두운 명도로 무겁고 두께가 있게 표현되어 도시에서 활발하게 생활하는 인물보다 건축물이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연출한다. 이는 사람이 작품에 등장해도 사람이 부재한 풍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구조를 강조하기 위해 도시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이나 곡선적인 구조는 생략하여 화면이 더 규격화되도록 구성한다. 건축물의 색은 라이트 블루 바이올렛(Light Blue Violet), 프렌치 그레이(French Gray), 블랙(Black)을 티타늄화이트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주객전도의 상황을 더욱 강하게 연출하기 위해 건축물의 면을 칠할 때 색의 채도를 높여 흰색의 비율을 4:6로 적게 사용하고, 강렬한 명도차이를 위해 검은색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작품 4] <Reflection 3>, 2015, acrylic on panel, 89.7×46.2cm

[작품 4]는 옆에서 바라본 창문 형태를 연상하여 구성한 작품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을 기반으로 두지 않고 본인이 구상한 공간을 바탕으로 제작하는데, 옆에서 바라본 창틀과 사람들을 오버랩하여 구성한다. 창틀로 표현한 틀은 현대인의 삶을 제한하는 사회적 구조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틀의 내부에 있는 익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입고 있는 옷과 머리 모양, 체격이 거의 유사하게 그려져 사람들 간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다른 작품들에서 화면 안에 구성된 건축적 구조를 중점으로 둔다면, 본 작품은 화면 내부의 공간과 사람들의 표현에 집중되도록 한다. 본인은 창틀로 표현된 프레임 안의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흔적을 지우고, 여러 시공간 안의 사람들을 마치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도록 서로 다른 채도의 물감층을 여러 겹 오버랩하여 표현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틀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표현한다. 사람들이 사회구조적인 틀 안에서 점차 개성을 상실해 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 3]과 마찬가지로 화면 안에서 사람들의 존재감을 흐리게 표현한다. 각각의 인물을 수성 색연필로 드로잉하고, 자세히 묘사한 부분에 티타늄 화이트(Titanium White) 아크릴 물감을 붓으로 고르게 펴 발라 명도 차이를 조절하고, 묘사 정도를 유사하게 한다. 화면의 내부 공간은 약 40번 가량의 물감층을 쌓아 표현한다. 본인의 다른 작품들은 물감층을 쌓을 때 최대한 붓 터치를 남기지 않고 물감을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본 작품은 붓 터치의 흔적을 화면에 계속 남기고 겹치는 방식으로 물감층을 쌓는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표면은 다른 작품들처럼 깔끔한 하나의 면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 시공간이 공존하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색상은 티타늄화이트, 라이트 블루 바이올렛(Light Blue Violet)을 사용하고, 물감층을 쌓을 때 티타늄 화이트의 비율을 높게 사용하여 채도를 낮춰

표현한다.

본 작품 이후의 작업은 다시 이전의 작업처럼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건축물의 구조만이 화면 안에 구성된다. 본인은 화면 안에 사람을 구성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풍경과 그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구조와 사람들을 함께 배치하면서 화면에 구성된 건축구조의 규격화된 형태를 반감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작업은 건축구조만을 소재로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기로 한다.



[작품 5] <Reflection 5>, 2015, acrylic on panel, 93×92.2cm

본 작품은 본인이 찍은 사진을 활용하지 않고, 보유한 패넬의 형태에 따른 연상을 바탕으로 화면 내부를 구성한다. 신도시인 분당과, 서울에서 지내면서 관찰한 아파트나 오피스 건축물 등 도시개발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의 외관을 관찰한 정보를 기반으로 형상을 구상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도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근대적 기능주의가 반영된 고층빌딩들은 수직 상승적이고, 창이 구획이 아주 작은 단위로 일정하게 나뉘어 있다. 또한 창과 창 사이의 거리도 가깝게 설계된다. 이러한 고층빌딩의 수직상승을 강조하기 위해 수직적인 구도로 작품을 구상하고 도식화한다.

[작품 5]는 [작품 1]부터 [작품 4]까지 작품의 재료로 사용했던 젤스톤(Gel-Stone)과 롤어텍스(Roll-A-Text)를 모두 제외하고 아크릴 물감만을 사용한 첫 작품이다. 실제 건축물의 형상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한 [작품 1]의 제작 당시 실질적인 건축물이 지니고 있는 질감을 평면의 화면에 표현하고자 롤어텍스와 젤스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건축물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가상으로 구현한 건축물을 소재로 활용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질감 표현보다는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구조의 외각표현을 위해 아크릴 물감만을 재료로 사용한다. 롤어텍스와 젤스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평면을 기반으로 한 건축적 형태의 작업으로서 입체감을 유지하기 위해 아크릴을 바르는 횟수를 더 추가하여 가장 앞쪽에 있는 면은 최대 40번~50번가량 물감층을 얇게 쌓아 올려 앞으로 튀어나오도록 한다. 구도는 좌우 대칭으로 표현하여 구조의 반복을 더욱 강조한다.

[작품 5]는 고층건축물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 작업보다 창문이나 구조를 세밀화 시켜 서울의 광화문, 잠실 등에서 고층빌딩들의 응집을 보며 느낀 스펙터클한 구조적 잔상을 표현한다. 색상은 실버(Silver), 프렌치 그레이(French Gray), 블랙(Black)을 사용하고 그중 실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전 작품들은 서구 건축양식과 서구 기능주의 건축의 영향에 따라 건설된

콘크리트 건축물을 위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흰색과 회색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본 작품은 콘크리트 이후 건축자재로 주목받는 금속판과 알루미늄 건축물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실버를 주요 색채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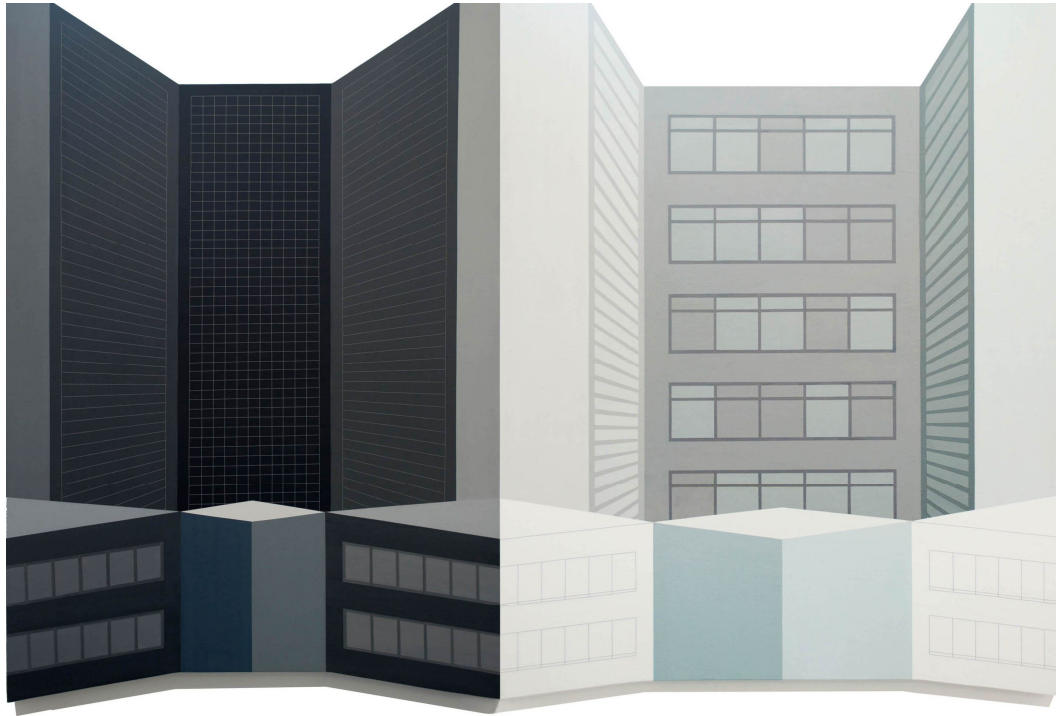
[작품 6] <Repeat 1>, 2015, line tape, acrylic on panel, 120×88.6cm

[작품 6]은 건축물의 파사드(façade)를 전체적인 구도로 사용하지 않고, 패턴적인 건축물로 공간을 구성한다. 건축물의 반복적 구성은 대형 아파트 단지의 군집을 표현한다. 같은 형태의 건축물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라데이션(gradation)을 통해 패턴적인 구조가 반복되어 형성되는 것을 화면 내부에서부터 부각되도록 한다. 패널 외각의 꺾임과 화면 내부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화면을 구성하여 입체적인 작품을 만든다. 실제 있을법한 구조물과 본인이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 화면 안에 조작적으로 구성한 구조물을 조합한 풍경은 과장되게 표현되어, 패턴적인 형상이 밀집된 도시 풍경에 경각심을 주고 도시의 인상에 대한 환기를 꾀한다.

[작품 6]은 기존 작업과 달리 테이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사용한다. 본 작품은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지점까지는 온전히 아크릴 물감으로 채워진 색면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면에 테이핑하여 원근에 따라 계산된 횡수만큼 아크릴 물감을 바른다. 내열마스크 테이프#244로 제한한 구역에 계산된 붓질 횡수를 채워 물감층이 형성되면 테이프를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테이프는 작품에 남지 않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아래 1/3 지점에는 작품에 테이프가 남아 직접적인 요소로 사용된다. 아래부터 1/3지점에는 오직 흰색 아크릴 물감과 회색 라인 테이프만이 사용된다. 먼저 티타늄화이트(Titanium White)로 정해진 면을 채우고 나면 건축물의 형상을 스케치하고, 스케치한 선을 따라 2mm 굵기의 회색 라인 테이프를 붙인다. 테이프의 라인에 의해 구성된 건축물은 온전히 아크릴 물감만을 사용하여 구성된 건축물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선적이고 평면적이다. 평면적인 표현은 도식적인 건축물의 틀을 더욱 그래픽적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아크릴로 가득 채워진 윗부분의 면이 선으로 이뤄진 구획과 무게감에서도 대비를 이뤄 각각의 평면적인 특성과 입체적 특성을 강조한다. 라인 테이프는 얇고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입

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약간의 힘을 가해도 손상될 만큼 유약하다. 시각적으로 규격화되고 고정된 건축물은 견고해 보이지만, 현대의 도시에서는 금방 부서지고 새 건축물로 바뀐다. 건축물의 내부공간은 더욱 빠르게 변한다. 내부적 및 외부적 영향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변화하고 사라진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은 이러한 건축물의 생성과 소멸을 자주 목격한다. 이처럼 본인은 언제든지 다른 성격으로 변할 수 있고, 그러한 변형을 반복하는 현대 도시의 구조를 라인 테이프의 속성에 빗대 표현한다. 색으로만 구성된 무게감이 무거운 구획과 라인으로 구성되어 무게감이 가벼운 구획은 생성과 소멸, 도시의 반복되는 순환을 상징한다.

색상은 티타늄화이트, 프렌치 그레이(French Gray), 블루 그레이(Blue Gray), 블랙(Black)을 사용하고, 그라데이션으로 화면을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한다.



[작품 7] <Repeat 2>, 2015, line tape, acrylic on panel, 120×85cm,  
120×96.5cm/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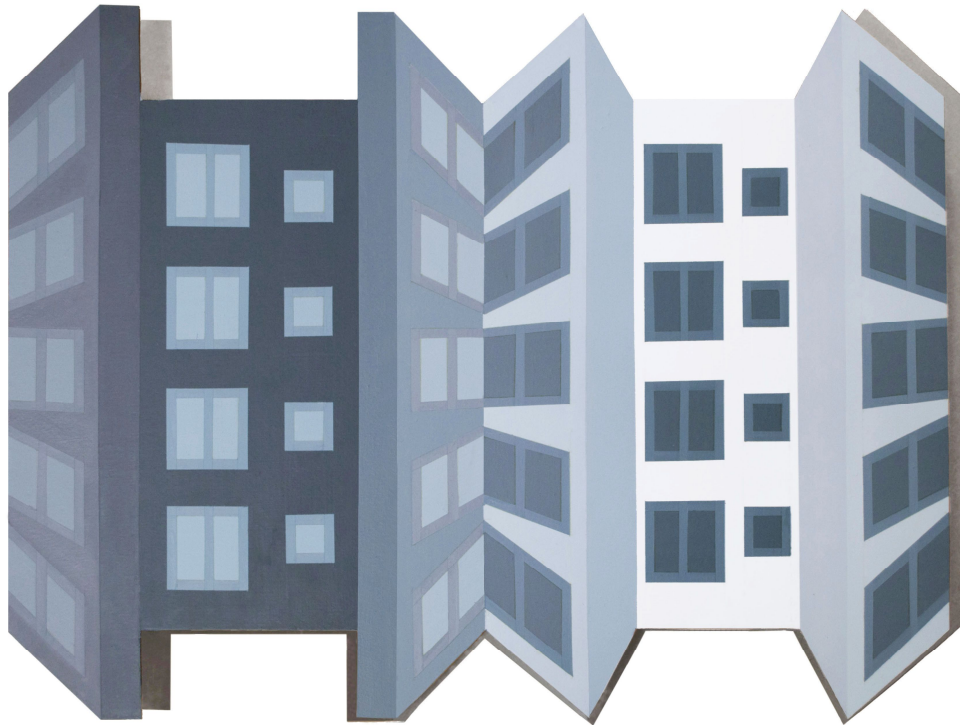
[작품 7]은 두 개의 패널이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본 작품은 패널 외각의 형태가 꺾임이 반복되는 형상으로 건축물, 창문 모양 등 내부구조뿐만 아니라 외부구조 자체도 패턴적인 성질을 띤다. 본인의 작업은 2차원의 회화적 환영으로서 존재할 뿐이지만, 작품을 구성하는 패널 외각 자체의 꺾임을 화면 내부의 건축구조와 연결하여 작품이 입체적으로 표현되도록 한다. [작품 7]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패널 외각의 꺾임과 화면 내부구조의 연결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외각의 꺾이는 부분을 화면 내부의 건축구조와 연결할 때 음영에 따라 색의 명도를 대비되게 표현함으로써 입체감이 더욱 부각되도록 한다. [작품 2]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높이가 같고, 형태가 유사한 패널들을 연결하여 내부적으로도 형태가 이어지도록 구성함으로써 화면 내부와 외부 각각으로 패턴화된 구조가 더욱 강조되도록 한다. 왼쪽 패널은 도식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오른쪽 패널은 도식적으로 표현한 형태 안에서 창문의 색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구성적인 차이를 남겨둔다.

본 작품은 광화문, 강남 등 서울의 오피스 건축물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오피스 건축물은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으로 건조하고, 심플하다. 또한 작은 단위의 창문들이 여유 공간 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작품 7]은 이전의 작업보다 더욱 기하학적이고 그래픽적인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고정 관념처럼 자리 잡은 사회적 틀과 그에 대한 인상을 표현한다.

[작품 7]의 왼쪽 패널은 티타늄화이트(Titanium White), 프렌치 그레이(French Gray), 블루 그레이(Blue Gray), 블랙(Black)을 사용하고, 그중 블루 그레이와 블랙의 비율을 높게 사용하여 어두운 명도로 저녁 시간대를 표현한다. 오른쪽 패널은 티타늄화이트, 프렌치 그레이, 세룰리안블루(Cerulean Blue)를 사용하고, 티타늄화이트와 프렌치 그레이의 비율을 높여 왼쪽의 패널과 대비를 주는 낮 시간대를 표현한다. 낮과 저녁의 시간을 하나의 작품 안에서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차이에 따른 빛의 변화와 그러한 빛의 변화로

인한 구조의 음영을 표현한다.

본 작품에서는 [작품 6]과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작품 진행 과정에서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제거하여 부수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라인 테이프를 패널 표면 위에 남겨 직접적으로 사용한 부분의 대비를 통해 평면적 감각과 입체적 감각이 각각 부각되도록 한다. 또한 화면을 구성하는 패널 중에서 왼쪽 패널에는 라인 테이프를 윗부분에 사용하고, 오른쪽 패널에는 아래쪽 부분에 사용하여 라인 테이프가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구성되게 한다. 이것은 라인 테이프의 속성에 빗대어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들의 구조적인 순환을 표현한 것으로 너무나 빠르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도시 풍경에 대해 사람들이 재고할 수 있게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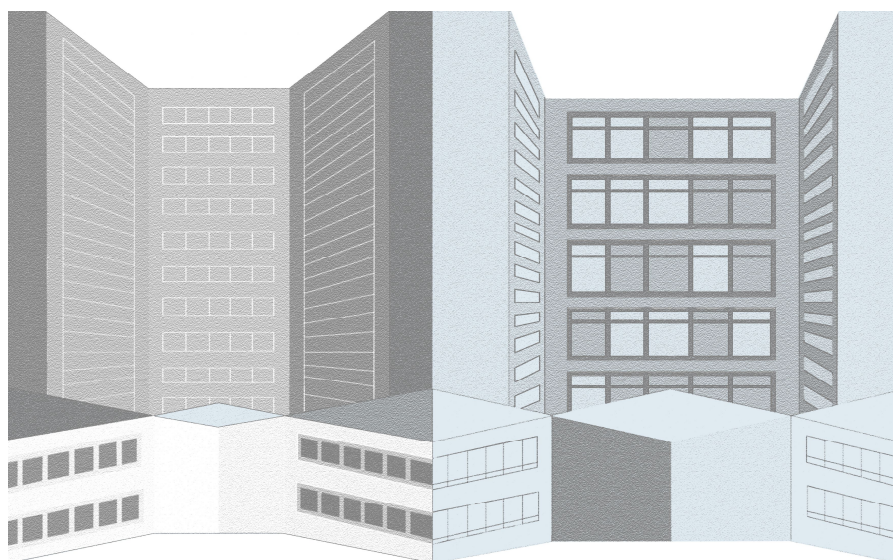
[작품 8] <Repeat 3>, 2016, acrylic on woodrock(boardlong), 45×60cm

본 작품은 보유한 패널을 기반으로 했던 작품들과 달리, 본인이 직접 밀바탕이 되는 재료의 외각 형태를 구상한다. 본 작품은 강도가 단단한 우드락을 커팅 하여 작품의 밀바탕이 되는 판을 제작한 것이다. 우드락은 패널보다 형태를 변형하는데 유동적이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외각의 형상을 구상할 수 있다. 이전 작품들이 주어진 패널의 형태에 맞춰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본 작품은 화면 내부의 구성과 밀바탕 판의 외각 형태와의 관계를 에스키스 단계부터 고려한다. 이전 작품들에서처럼 외각 형태의 꺾임에 따라 화면 내부에 건축구조를 구성하고 아크릴 물감의 미묘한 두께 차이를 통해 입체적인 구조를 표현하지만, 적극적으로 직접 외각의 형태를 구성하여 화면 내부에서 대칭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본 작품의 밀바탕 재료로 사용된 우드락의 외각은 아파트 단지나, 건축물이 밀집된 풍경을 토대로 하여 제작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들과 고층건축물이 군집된 잠실, 서초 등의 풍경은 마치 복제된 건축물들이 질서 정렬하게 응집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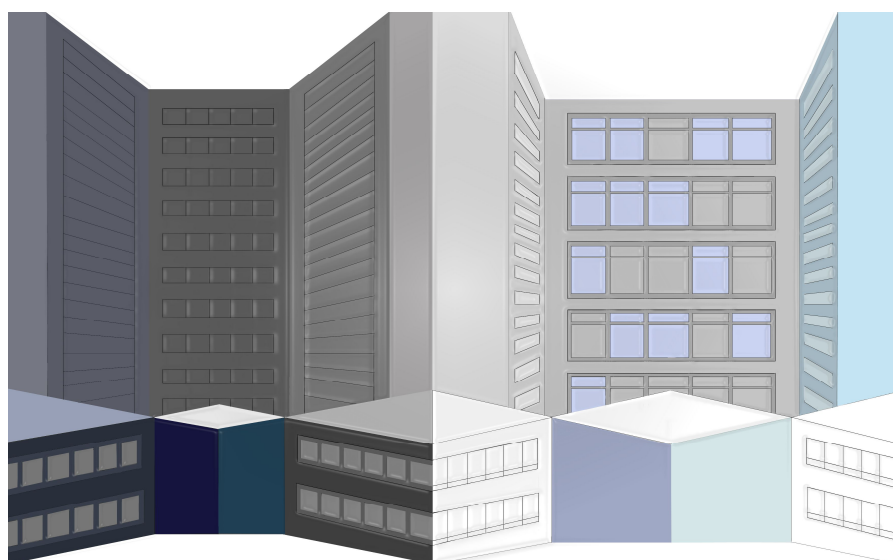
이전 작품들이 정면 구도를 통해 건축물의 파사드(façade)와 구조를 강조했다면, 본 작품에서는 우드락의 외각 프레임 형태는 다르나 화면 내부구조를 대칭 구조로 표현하여 반복적인 구조를 더욱 강조한다. 이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인 틀에 구속되어 그 틀에 맞춰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이미 패널의 형상이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도를 대칭적으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작업부터는 외각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화면 내부구조들을 대칭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현대 사회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인의 작품을 통해 더욱 강렬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색상은 티타늄화이트(Titanium White), 실버 그레이(Silver Gray), 블랙(Black), 퍼머넌트 블루라이트(Permanent Blue Light)를 사용하여 우드락 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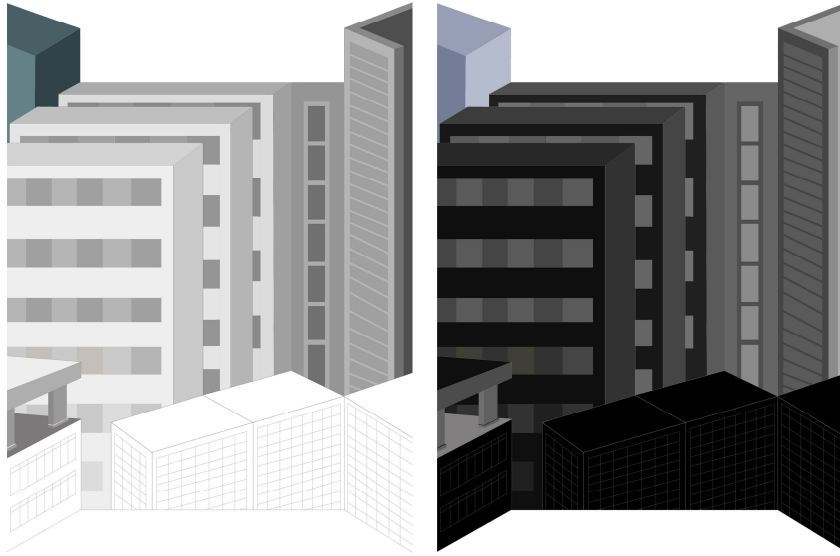
의 꺾임에 따라 색채의 명암을 대비되게 표현함으로써 실질적인 입체 감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작품은 [작품 7]과 마찬가지로 화면의 왼쪽 부분은 어두운 색상으로 표현함으로써 밤의 풍경을 표현하고, 오른쪽 부분은 밝은 색상으로써 낮의 풍경을 표현하여 도시 공간의 시간적인 순환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변화를 묘사한다. 이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병치된 화면 안의 도시 공간이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공간으로 승화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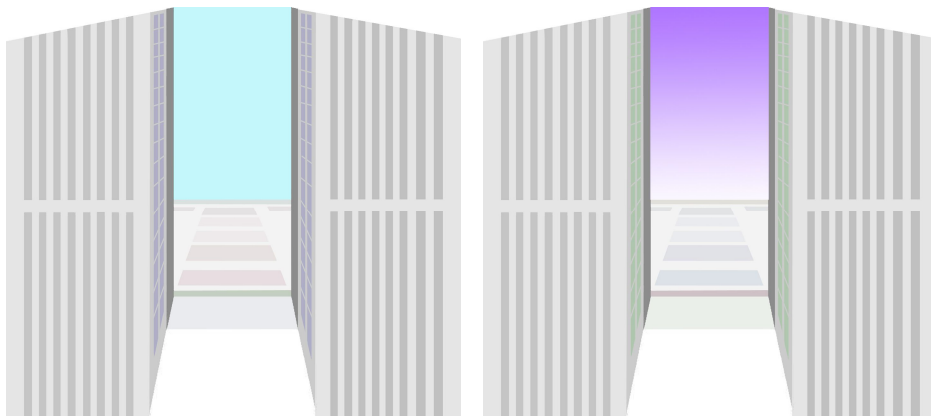
[작품 9] <Untitled>, 2015, print on paper, 29.7×42cm



[작품 10] <Untitled>, 2015, print on OHP film, 29.7×42cm



[작품 11] <Untitled>, 2015, print on paper, 29.7×42cm



[작품 12] <Untitled>, 2015, print on paper, 29.6×65.4cm

[작품 9], [작품 10], [작품 11], [작품 12]

본 작품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드로잉 한 작품들이다. 일러스트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드로잉 한 후 종이에 인쇄한다. 손으로 드로잉을 하는 것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드로잉 하는 것이 이미지 편집에 수월하고,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여 정밀하게 계산된 형태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드로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화면을 사포질하고, 붓으로 물감을 바르는 등의 본인과의 교감이 줄어들고 감성적인 흔적이 화면 안에 남지 않아, 더 차갑고 규격화된 건축물의 이미지를 시각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파일로 존재하는 작품은 원하는 수량만큼 인쇄할 수 있으므로 복수적으로 반복되는 이미지를 제작하여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작품 9], [작품 10]은 [작품 7]을 구상하면서 드로잉 한 것이다. 포토샵의 필터(Filter) 기능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실질적인 질감을 표현해 보았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묘사하는 것보다 평면적으로 정교하게 콘크리트, 유리 등의 질감이 표현될 수 있도록 포토샵의 필터를 이미지에 적용한다. 그 후에 각각 적용된 질감과 연결되도록 디지털 파일이 인쇄될 종이의 질감을 선택한다. [작품 9]는 텍스처화(Texturizer)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작품에서 콘크리트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본 작품이 인쇄된 종이의 질감도 요철이 있는 종이로, 실질적인 질감표현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작품 10]은 투명하고 형상을 반영하는 유리의 특성을 드로잉에 표현하기 위해서 비닐랩(Plastic Wrap) 필터를 작품에 적용하고, 매끄럽고 투명한 OHP 필름에 디지털 파일을 인쇄한다. 본 작품은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제 작품에서 활용하는 물감층의 두께 차이와 테이프를 사용하면 생긴 요철의 효과를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화면 안에 구성된 건축요소에 실질적인 느낌을 더한다.

[작품 11]은 [작품 6]을 구상하면서 드로잉 한 것으로, 화면 안에 구성된 공간의 상반되는 시간을 색상의 반전 효과를 통해 기계적으로 표현한다. 화면의 왼쪽은 낮 시간을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은 밤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빛의 변화에 따른 건축구조의 색상차이를 표현하여 시간과 공간의 순환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를 남겨둔다.

[작품 12]는 [작품 5]를 구상하면서 드로잉 한 작품이다. 화면 안에 건축물을 대칭으로 구성함으로써 구조의 반복을 구도적으로도 강조한다. 본 작품의 화면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형상은 오피스 건축물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작품의 화면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창문을 표현할 때 세밀화된 창문이 복수적으로 나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본 드로잉에서는 다른 드로잉 작품들과 달리 자연경관이 표현된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왼쪽은 낮 시간대의 하늘이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은 해가 저물어가는 노을빛의 하늘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빛의 변화에 따라 음영의 차이가 생기는 건축물의 색상은 왼쪽과 오른쪽 화면 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변화되어있지 않다. 이는 도시의 경관에 자연이 존재하긴 하지만, 도시 경관 속에 인위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자연과 건축물의 비상관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주제어: 반복(Repetition), 패턴(Pattern), 도시(City), 일상(daily life), 사회적 틀(Social Frame), 건축구조(Architectural Structures)

### Ⅲ. 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작품 중에서 2015년 석사 청구전에 전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조형 특성, 표현 형식을 분석한 글로서 본인 작품에 내재된 의미를 더욱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인은 2014년부터 사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 공간의 상호 관계를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해왔다. 본인의 경험에 입각하여 급격한 근대화 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른 한국 도시의 변화과정을 조사하면서 본인이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근대 기능주의 건축의 규격화된 특징에 대해 면밀히 알게 되었고, 도시에 대해 본인과 유사한 관점으로 작품을 진행한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견고히 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구조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서 본인 작품의 화면구성에 있어 실존하는 건축물의 형상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재 건축물의 특징을 통한 조작적 화면구성을 다양하게 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주거지를 도시로 옮기면서 경험한 사회적인 구조의 영향과 시각적 풍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각화하기 위해 형식적, 물성적인 측면에서 실험을 진행해왔다. 아크릴판, 롤어텍스(Roll-A-Text), 젤스톤(Gel-Stone) 등 실질적인 질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 보고, 화면 안에서 다양한 구도를 통해 건축물들을 구성해보았다. 실험의 결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아크릴 물감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직선적이고 규격화된 건축구조를 강조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과 화면을 구성할 때 화면의 외각 형태와 화면 내부의 형태를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작품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이처럼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업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문제의식을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 도시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이를 타당화 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에 제약을 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작품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재고하면서, 새로운 두 가지의 방향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꺾이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면 외각의 형태를 직접 구성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작업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패널 화면을 구성해보며 불필요한 배경을 배제하고 중점이 되는 건축물만을 화면에 구성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었고,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틀에 맞춰지는 모습을 작업과정에서 의미론적으로 답을 수 있었다. 이에 추가로 앞으로의 작업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건축적 형태의 패널을 활용하기 위해 2015년 12월 석사 청구전 직후 [작품 8]을 진행하며 앞서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작품 8]은 작품의 밑바탕이 되는 바탕 판 외각의 형상을 본인이 직접 구상한 것이다. 외각의 형상을 직접 구성함에 따라 건축구조를 더욱 입체적으로 규격화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화면 내부적으로는 화면구성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작업의 발전과정에서 [작품 8]이 초석이 되어 화면 외각의 꺾임에 따라 입체적인 구조를 적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화면의 외각과 화면 내부의 유기적인 형상에 더 집중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작품에 색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본인은 화면의 규격화된 구조를 강조하고, 획일적 성향의 도시 풍경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색을 최대한 절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색의 절제된 사용은 본인이 원했던 효

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현재 본인의 작업에는 무채색계열과 한색계열의 색채가 주된 색상으로 사용되는데, 구조에 대한 주목성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화면 안에 색상을 추가하여 변화를 주고자 한다. 또한 화면을 구성하는 각 건축구조의 색채선택에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자 한다. 무채색계열과 한색계열의 색상을 화면에 구성하는데 전체적인 목적은 있었지만, 각각의 색상을 선택하는데 명확한 규칙이 설정되어있지는 않았다. 화면 안에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만큼, 색채 사용에서도 더욱 명확한 규칙의 설정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다양성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대에 개인의 개성이 상실되어가는 아이러니한 사회구조를 들여다보고, 성찰함으로써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 본인의 작업은 현대 도시의 모습을 더욱 규격화되게 표현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환기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사회구조를 더욱 깊숙이 관찰하고 있다.

본인은 현재 사회와 도시의 모습에 대해 사람들이 재고해 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람들 스스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도록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고 싶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한 본인의 작업에서는 ‘구조의 반복’에 더욱 주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의 ‘반복’뿐만 아니라 ‘차이’에도 주목하여 본인의 작업을 심화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로서 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시각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험하여 본인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태희. 『프랭크 스텔라: 아방가르드의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 도서출판  
재원, 1995.
- 고성룡. 안우석. 안우진. 『근대에서 현대 건축의 20장면』, 도서출판 대가,  
2014.
- 김찬호. 『도시는 미디어다.』. 책세상, 2002.
- 발레리 줄레조 (Valerie Gelezeau).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길혜연. 후마니타스, 2007.
- 유현준.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가』. 을유 문화사, 2015.
- 임석재.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890~1940』. 서울: 휴머니스트, 2008.
- 한국도시연구소. 『한국 도시론』. 박영사, 1999.
- 황세연. 『헤겔 입문』. 중원문화, 2007.

-인터넷 뉴스-

- 진동선 「 획일화된 현대인의 일상 ‘찰칵’ 」。 『주간동아』. 2006.03.14. 526호  
<http://weekly.donga.com/List/3/all/11/78507/1> (2015.12.20.검색)

-인터넷 정보-

- 네이버 지식백과-커튼월(curtain wal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619&cid=40942&categoryId=323>  
39 (2016.05.11.검색)
- 두산백과-서울특별시의 인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0629&cid=40942&categoryId=316>  
12 (2016.05.06.검색)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images/%EC%84%9C%EC%9A%B8%EC%8B%9C7\(2\).jpg](https://seoulsolution.kr/sites/default/files/images/%EC%84%9C%EC%9A%B8%EC%8B%9C7(2).jpg) (2015.12.22.검색)

세계미술용어사전-후기 회화적 추상. 월간미술, 199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95425&cid=42642&categoryId=42642> (2016.05.09.검색)

위키백과-파놉티콘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86%89%ED%8B%B0%EC%BD%98> (2016.05.14.검색)

위키피디아-시멘트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9%98%ED%8A%B8> (2015.12.25.검색)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분당신도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00687&cid=51884&categoryId=53390> (2015.12.13.검색)

-평론-

김애령. 《정직성 전》. 부산: 조현화랑, 2009.

출처 네오룩 <https://neolook.com/archives/20090320g> (2016.05.05.검색)

박영택. 《이여운 전》. 서울: 문화일보갤러리, 2005.

출처 네오룩 <https://neolook.com/archives/20051110e> (2016.6.10.검색)

정종구. 《배문경 전》. 대구: 봉산문화회관, 2014.

출처 네오룩 <https://neolook.com/archives/20140425f> (2016.4.28.검색)

-학술논문-

OECD. 「OECD 한국 도시정책 보고서 (Urban Policy Reviews, Korea 2012)」.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2013.

# ABSTRACT

## **A Study of Imagery embodiment of Urban Landscape Based on Patterned Architectural structure -Focused on works of my own**

Lee, Haeri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made an in-depth research of my works and described the meaning, in terms of expression form and content, exhibited under the theme of “Urban landscape with patterned disposition” in the Exhibition for Obtainment of Master’s degree in 2015.

On entering high school, I moved to a city in which active development was in progress. Hence, I started to pay attention to urban aspects because I was exposed to visual landscape surrounding my daily life and I was experiencing the changes of life style.

In Seoul, the capital of Korea, housing problems occurred due to the large-scale inflow of rural population into the city in the transition

period of industry posterior to modernization. So a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proceeded with urban planning in earnest since the 1960s. In the process of rapid urbanization, modern architectural style was introduced from the West. For this reason, the space and architecture were systematically divided in accordance with order and rules and arrived to form today's patterned urban landscape. As a result, the life of people living in the city went through many changes as well.

I paid atten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patterned characteristics observed in the urban space and buildings and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the repeated daily life in the city, and I began to explore how to visually express this phenomenon. City landscape looks complicated and diversified but when we carefully observe it, we can find that the city has repetitive and standardized forms. This kind of feature can be found, in particular, in architectural structures such as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and office buildings. Moreover, it is possible to equally find these repetitive and standardized features in the life of urban people. It is because they are exposed to similar thinking and behavior style under the gradual influences of the structure of the urban society. Therefore, I intend to embody the previously mentioned critical mind based on patterned structure of urban architecture. Through this attempt, I intend to create a new momentum for reflecting on urban environment and our society for further introspection.

This study will inquire into artists and their works who have shared the interest in the city from the similar viewpoint as mine regardless of

tim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mak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ir works and mine so as to analyze how the viewpoint of the city has been manifested so far in the visual way. In particula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ormative features and expression method of works such as screen composition and repetitive expression through architectural structure which belongs to my key interest, I aim to draw the meaning of the works and strengthen the content of my works as well.

In this study, I will inquire about urban landscape as well as the distress of people who live in the city, and I wi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of life enabling the clearer manifestation of emotional elements and individuality in the urban life style. Accordingly, this study will have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can raise awareness of people not to forget the intrinsic human traits even living in today's society and urban environment.